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統一新羅時代 遺物の 이미지를 活用한
現代패션 디자인 研究

2010年



HANSUNG
UNIVERSITY

漢城大學校 大學院

衣 裳 學 科

패션 디자인 專 攻

金 媚 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朱星姬

統一新羅時代 遺物の 이미지를 活用한
現代패션 디자인 研究

The modern fashion design study that
I already utilized of unitary Silla relics.

2010年 06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衣 裳 學 科

패션 디자인 專 攻

金 媚 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朱星姬

統一新羅時代 遺物の 이미지를 活用한
現代패션 디자인 研究

The modern fashion design study that
I already utilized of unitary Silla relics.

위 論文을 衣裳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10年 06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衣 裳 學 科

패션 디자인 專 攻

金 媚 仙

金媚仙의 衣裳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06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저를 격려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끝까지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주성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한 지도와 심사를 해주신 유금화 교수님과 윤진아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학기간동안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최해주 교수님, 김용주 교수님, 양미경 교수님, 지혜경 교수님, 김희정 교수님, 안현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품사진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정열 님, 항상 옆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이현주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논문에 조금 더 열중 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경기 산업 직업학교의 김태희 과장님과 많은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작품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학원 동기와 선, 후배님들 감사합니다.

항상 작품 작업과 논문 쓸 때 같이 고생하고 힘이 되어준 든든한 버팀목 형준이 오빠와 나의 든든한 지원군 친구 오분이와 주영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지원과 사랑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하나뿐인 소중한 동생 미진이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10 年

김 미 선

논 문 개 요

그 동안 세계의 문화는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이 주도를 하였으나 20세기부터 일본,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움직임이 보여 왔으며 21세기 들어 범 아시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 중국, 인도 등으로 집중됐던 동양에 대한 관심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과속도가 가장 빠른 대중매체인 TV드라마나 영화에서 접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한정적인 것이어서 넓게는 세계에 좁게는 젊은 층에게 까지 한국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이 조선시대의 한복으로 제한적 인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로 인해 2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복식이 한복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를 제외한 시대들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한복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복식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전통적 요소의 응용이나 재현적인 요소가 강해 국제주의 보다는 지역주의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신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통일신라의 사회, 문화, 예술, 복식에 대해 이론적 고찰과 통일신라 유물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여 통일신라 예술의 조형적 특성을 각 보여주는 각 분야의 유물을 설정하여 디자인 모티브로 제시하였다. 이 유물들은 통일신라의 불상, 토기, 불교공예품, 일상생활 공예품, 토용에서 10점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문화를 잘 나타내어 주는 유물을 설정하여 그것을 복식에 적용함으로 인해 한국 전통 이미지에 대한 시대적 국한을 극복하고 좀 더 폭넓은 전통이미지를 제시하며, 아울러 한국 패션이 나아가야할 방향의 전

환점을 맞이하고 전개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디자인 해석 방법으로는 유물 외형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유물의 외형의 형태를 응용, 변형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유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의미를 재해석한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작품을 전개 해나가며, 유물의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모던하면서도 예술적인 정서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소재는 현재 트렌드와 유물의 대부분의 소재가 금속소재임을 반영하여 메탈릭 소재를 주소재로 선택한 후 디자인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부소재를 설정하여 이를 믹스 앤 매치 (Mix & Match)를 통하여 서구적인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융화되어 작품을 오브제화 함에 있어서 시각적 상징성을 극대화하였다.

작품은 원피스, 투피스등 총 10벌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 2 장 통일신라의 시대적 배경	5
제 1 절 통일신라의 사회, 문화, 종교	5
1. 통일신라의 사회적 배경	6
2. 통일신라의 문화적 배경	11
3. 통일신라의 종교적 배경	12
제 2 절 통일신라의 복식	15
제 3 장 통일신라예술의 조형적 특징과 유물	19
제 1 절 통일신라예술의 조형적 특징	20
제 2 절 불교 조각의 특징과 유물	22
제 3 절 공예품의 특징과 유물	26
제 4 절 토용의 특징과 유물	39
제 4 장 대표적인 유물 선정 및 디자인 연구	43
제 1 절 불상의 대표적 유물 선정	43
제 2 절 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 선정	44
1. 토기의 대표적 유물 선정	45

2. 불교 공예품의 대표적 유물 선정	46
3. 일상생활 공예품의 대표적 유물 선정	48
제 3 절 토용의 대표적인 유물 선정	49
제 4 절 디자인 연구	50
제 5 장 작품 제작	54
제 6 장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 표 목 차 】

[표 2-1] 통일신라의 사회, 문화, 종교	15
[표 4-1] 각 유물에 대한 디자인 연구	50



【 그림 목 차 】

<그림 2-1>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7
(출처 : http://blog.naver.com/ilsutory/100011592228)	
<그림 2-2> 석굴암과 불국사의 전경	12
(출처 : http://blog.naver.com/unesco114/110066554984)	
<그림 2-3> 상업사 동종	12
(출처 : 한국 미술사, p.340)	
<그림 2-4> 상감장식 빗	17
(출처 : 한국 미술사, p.357)	
<그림 2-5> 토용 복두, 단령을 입은 문관상, 남자상	17
(출처 : 경주 박물관 명품 100년, pp.90~91)	
<그림 2-6> 토용 상의 위에 치마를 입고 표를 두른 여인상	19
(출처 : http://blog.naver.com/nanalaa/130046780364)	
<그림 3-1> 감산사 미륵보살 입상	25
(출처 : 한국미술사, p.287)	
<그림 3-2> 감산사 아미타여래 입상	25
(출처 : 한국미술사, p.287)	
<그림 3-3> 금동 관음보살입상	25
(출처 : http://blog.naver.com/nocleaf)	
<그림 3-4> 안압지출토 금동여래입상	25
(출처 : http://blog.naver.com/dp99q009)	
<그림 3-5> 백률사 금동 약사 여래 입상	25
(출처 : 경주 박물관 명품 100년, pp.90~91)	
<그림 3-6> 일제 강점기 유출되었던 통일신라의 불상	25
(출처 : http://blog.naver.com/dankoon2001/60106785987)	
<그림 3-7> 탑모양 뼈 향아리	28
(출처 : 한국 미술사, p.327)	
<그림 3-8> 녹유인화문 뼈향아리	28

(출처 : 한국 미술사, p.327)	
<그림 3-9> 원화 십년명 뼈향아리 와 뚜껑의 명문	28
(출처 : 한국 미술사, p.328)	
<그림 3-10> 토기초화문 언정명완의 앞면과 뒷면	30
(출처 : 한국 미술사, p.330)	
<그림 3-11> 병, 향아리, 뚜껑 각종	30
(출처 : 한국 미술사, p.331)	
<그림 3-12> 주름무늬병 각종	30
(출처 : 한국 미술사, p.331)	
<그림 3-13> 매병 모양 토기	30
(출처 :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 p.102)	
<그림 3-14> 토기(미상)	30
(출처 : http://cafe.naver.com/6th2008/149)	
<그림 3-15> 금동 사각사리 외함	32
(출처 : 한국 미술사, p.332)	
<그림 3-16> 청동 전각형 사리기	32
(출처 : 한국 미술사, p.332)	
<그림 3-17> 금동 사각 사리 외함	32
(출처 : 한국 미술사, p.334)	
<그림 3-18> 금동 전각형 사리기	32
(출처 : 한국 미술사, p.335)	
<그림 3-19> 상원사 범종	34
(출처 : 한국 미술사, p.340)	
<그림 3-20> 성덕대왕 신종	34
(출처 : 한국 미술사, p.341)	
<그림 3-21> 금동 손잡이 향로와 향로	34
(출처 : 한국 미술사, p.345)	
<그림 3-22> 함통을유명 반자	34
(출처 : 한국 미술사, p.345)	

<그림 3-23> 청동반자	34
(출처 :국립 경주 박물관, 고고관, p.288)	
<그림 3-24> 금동 수정감장 촛대	36
(출처 :한국 미술사, p.46)	
<그림 3-25> 광명대	36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	
<그림 3-26> 청동정병	36
(출처 :한국미술사, p.347)	
<그림 3-27> 청동정병	36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	
<그림 3-28> 청동 병	36
(출처 :한국미술사, p.347)	
<그림 3-29> 청동 구(仇)명합	38
(출처 :한국 미술사, p.350)	
<그림 3-30> 화형접시, 대접, 국자, 순가락	38
(출처 :한국 미술사, p.351)	
<그림 3-31> 금동제가위	38
(출처 :국립경주 박물관, 고고관, p.33)	
<그림 3-32> 철제 합령천일명 자물쇠	38
(출처 :한국 미술사, p.357)	
<그림 3-33> 상감장식 빗	38
(출처 :한국 미술사, p.357)	
<그림 3-34> 문관상	41
(출처 :경주박물관명품100년, p.90)	
<그림 3-35> 남자상	41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고고관, p.216)	
<그림 3-36> 복두를 쓴 남자상	41
(출처 :우리옷 이천년, p.35)	
<그림 3-37> 병사상	41

(출처 : http://cafe.naver.com/corean2009/580)	
<그림 3-38> 병사상	41
(출처 :우리옷 이천년, p.36)	
<그림 3-39> 남자상	41
(출처 :우리옷 이천년, p.36)	
<그림 3-40> 남자상	41
(출처 :우리옷 이천년, p.36)	
<그림 3-41> 무인상	41
(출처 :우리옷 이천년, p.36)	
<그림 3-42> 표를 두른 여인상	42
(출처 : http://cafe.naver.com/corean2009/580)	
<그림 3-43> 여인상	42
(출처 : http://blog.naver.com/nanalaa/130046780364)	
<그림 3-44> 표의를 입은 여인상	42
(출처 :국립경주 박물관, 고고관, p.206)	
<그림 4-1> 불상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44
<그림 4-2> 토기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45
<그림 4-3> 불교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47
<그림 4-4> 일상생활 공예품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49
<그림 4-5> 토용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50
<그림 5-1> 작품 1 도식화	55
<그림 5-2> 작품 1	56
<그림 5-3> 작품 2 도식화	58
<그림 5-4> 작품 2	59
<그림 5-5> 작품 3 상의 도식화	61
<그림 5-6> 작품 3 하의 도식화	61
<그림 5-7> 작품 3	62
<그림 5-8> 작품 4 도식화	64
<그림 5-9> 작품 4	65

<그림 5-10> 작품 5 도식화	67
<그림 5-11> 작품 5	68
<그림 5-12> 작품 6 탑 도식화	70
<그림 5-13> 작품 6 원피스 도식화	70
<그림 5-14> 작품 6	71
<그림 5-15> 작품 7 도식화	73
<그림 5-16> 작품 7	74
<그림 5-17> 작품 8 원피스 도식화	76
<그림 5-18> 작품 8 바지 도식화	77
<그림 5-19> 작품 8	78
<그림 5-20> 작품 9 도식화	80
<그림 5-21> 작품 9	81
<그림 5-22> 작품 10 상의 도식화	83
<그림 5-23> 작품 10 베스트 도식화	83
<그림 5-24> 작품 10 하의 도식화	83
<그림 5-25> 작품 10	84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1세기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절충적으로 융합된 퓨전화 현상 및 타 문화의 무제한적 혼용으로 인한 '탈경계화(脫境界化)' 등 실험적 시도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이와 함께 현대 사회를 '문화 경쟁력의 시대'로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문화는 각 나라의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활용되기도 한다.¹⁾

그 동안의 세계의 문화는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이 주도를 하였으나 20세기부터 일본,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21세기 들어 범 아시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 중국, 인도 등으로 집중됐던 동양에 대한 관심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국의 패션디자인 산업은 1980년대 중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패션디자이너들의 민족 고유한 전통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디자인 의식이 확립되고 한국성에 대한 정체성을 본격화하고자 하였으며, 패션디자이너들의 세계진출을 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졌다. 21세기에 들어서는 한류(Korean Wave) 열풍으로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고 있다.

이러한 한류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패션시장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중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촉함으로써 인해 지루하

1) 채금석, 「전문가 칼럼, Re-Orienting Fashion, 그 중심에 선 한국의 문화」, 한스타일, <http://www.han-style.com>

고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현대적 정서에 맞게 재해석 되어 모던하면서 예술적인 정서로 승화하여 젊은 층에게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속도가 가장 빠른 대중매체인 드라마나 영화에서 접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한정적인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TV드라마 ‘다모(2003)’, ‘대장금(2003)’, ‘황진이(2006)’ ‘바람의 화원(2008)’등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 중 조선시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였고 이것이 한류를 따라 해외에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 전통복식에 대한 세계의 인식도 조선시대의 한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TV드라마 ‘주몽(2006)’, ‘태왕사신기(2007)’등으로 조선시대에서 탈피한 시대를 다룬 드라마들도 크게 성공을 이루었지만 이 TV드라마의 배경 또한 고구려라는 시대적 국한이 있으며, 한국의 전통복식이 조선시대의 한복이라는 인식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2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복식이 한복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를 제외한 시대들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한복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복식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알리기 보다는 전통적 요소의 응용이나 재현적인 요소가 강해 국제주의 보다는 지역주의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다뤄지지 않았던 시대 중 하나인 통일신라를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통일신라는 현재(2009년 하반기) 한국 최초로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TV드라마 ‘선덕여왕’(2009)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라 시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드라마 제작과 동시에 뮤지컬 제작, 일본, 대만에 이어 카자흐스탄과 터키 등지에 수출되고 있는 등 한류열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선덕여왕이 방영되는 세계 곳곳에서도 신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또한 천년의 신라에서 삼국을 통일시킨 통일신라시대는 신라 사회의 독특하고 안정된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한 시대로서 미술사 및 예술양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양식적으로 가장 발달한 시기²⁾이며 동시대의 공통된 예술양식인 ‘이상적 사실주의’³⁾를 따르면서도 전통적인 자연존중의 인식과 고(古)신라의 휴머니즘과 조화를 이루어 신라의 독특한 미의식을 만들어 냄으로써 21세기의 한국 패션디자이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올바른 예를 제시해 주고 있어 현재 전통복식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조선시대의 전통복식을 현대화 하는 연구는 대부분 회화나 복식의 일부분 등 소극적인 모티브를 설정하여 응용 및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홍은정(2009)은 조선시대 규방문화를 반영한 패션디자인 연구 등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정인(2009),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연구, 임현숙(2009) 고구려 복식 재현을 위한 장식문양 연구등 조선시대 이외의 시대에 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시대 또한 아직은 다양하지 못하고 고구려 등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연구 방법 또한 소극적 방법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신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복식 및 회화 등 소극적 모티브 응용이 아니라 통일신라의 사회, 문화, 예술, 복식에 대해 이론적 고찰과 통일신라 유물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서적 및 선행자료 연구, 인터넷 검색 등의 연구로 디자인의 모티브를 추출하였다. 디자인의 모티브는 통일신라의 조형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각 분야의

2) 주경미,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공예양식의 변화와 발전」, 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2005, p.211

3) 정병모, 「신라미술의 미의식」,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2006, p.97

유물로 설정하였으며, 이 유물들은 통일신라의 불교조각, 토기, 불교공예품, 일상생활 공예품, 토용에서 10점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문화를 잘 나타내어 주는 유물을 설정하여 그것을 복식에 적용함으로써 인해 한국 전통 이미지에 대한 시대적 국한을 극복하고 좀 더 폭넓은 전통이미지를 제시하며, 아울러 한국 패션이 나아가야할 방향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전개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으로는 전통적 요소를 응용하거나 재현을 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모티브의 과감한 오브제화를 통하여 시각적인 상징성을 부여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복식의 이미지를 한복이라는 국한된 범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한국고유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복식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자체를 현대화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문화에 대한 가치를 살리면서 탈 형태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디자인 해석 방법으로는 유물 외형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유물의 외형의 형태를 응용, 변형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유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의미를 재해석한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작품을 전개 해나가며, 유물의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모던하면서도 예술적인 정서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소재는 현재 트렌드와 유물의 대부분의 소재가 금속소재임을 반영하여 메탈릭 소재를 주소재로 선정한 후 디자인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부소재를 설정하여 이를 믹스 앤 매치 (Mix & Match)를 통하여 서구적인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융화되어 작품을 오브제화함에 있어서 시각적 상징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작품제작, 디자인, 모티브에 필요한 시각적 자료는 역사적 문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모티브로 하여 총 10벌의 현대적 감각의 의상을 제작하였다

제 2 장 통일신라의 시대적 배경

제 1 절 통일신라의 사회, 문화, 종교

7세기의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 대륙에서 수를 대신할 당이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고, 한반도와 요동지방에서는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발해가 건국된 격동의 시기였다.

통일신라는 당과의 연맹으로 백제, 고구려를 차례로 정벌하여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나당전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당의 세력을 축출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삼국이 지니고 있던 혈연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민족 문화가 하나의 국가 아래 발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한국 고대사회에서는 정치·사회적 변형 및 대외관계를 통해 무역과 문화적 교류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통일신라는 신라의 역사 중 중대(中代, 29대증무열왕~36해공왕)⁴⁾에서 하대(下代, 37선덕왕~56경순왕)에 포함이 되는데 중앙정치 조직이나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을 대부분 중대 때 정비되었고 이것은 삼국 통일 후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시기의 신라는 통일을 이룩한 뒤 통일을 이룬 자신감과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는 개방된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꽃을 피

4) 중대(654년~780년), 하대(780년~935년)

운 전성기라 할 수 있다.

1. 통일신라의 사회적 배경

첫째, 신라의 통일 후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통일신라는 새로운 체제를 강화하는데 유교 정치이념을 크게 적용하였으며 중앙 관료 기구를 더욱 보강하고자 하였다. 또한 귀족들의 개별적인 지배기반을 약화시키고 국왕의 공적 권위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모든 민(民)은 국왕의 일원적인 통치대상으로 재편성 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문무왕 8년(668)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함으로써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문무왕은 복원경(678)과 금관경(680)을 설치하여 5소경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기병 중심의 5주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통일된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천왕사를 창건하였다.

문무왕이 재위 21년 만에 죽자 신문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신문왕은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가체제 정비를 시작하려 하였다. 제일 먼저 정치세력을 재편하였는데 즉위 한 달 만에 발생한 김흠돌의 반란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후 신문왕은 중앙집권적인 지방 통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치기구(14부)와 군사제도 (9서당 10정)를 정비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9주 5소경으로 완비하였으며, 외사정을 파견하여 감찰을 강화하였다. 9주 5소경이란 지방 지배조직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으로 삼국 통일의 정신을 고려하여 옛 고구려, 백제, 신라의 땅에 3주씩을 설치하여 전국을 9주로 나눈 것이다. 각 주는 다시 군으로 나뉘었고 주와 군 아래에는 현을 두었으며 주와 구와 현에는 각각 도독, 태주, 현령을 하건하고 지방에는 5경을 설치하여 이질적인 세 나라의 문화를 통합하려는 중심지로 활용하였다.

<그림 2-1>은 통일신라의 9주 5소경을 나타내주는 지도이다.



<그림 2-1> 통일 신라의 9주 5소경

(<http://blog.naver.com/ilsutory/100011592228>)

이 여세를 몰아 달구벌로 천도할 계획을 세웠으나 경주에 세력기반을 둔 귀족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또한 신문왕은 새롭게 중앙에 진출한 관료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신문왕이 죽고 효소왕이 즉위를 하였으나 효소왕은 6세의 어린사이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정국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시기의 외척을 포함한 지배세력의 각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효소왕이 죽은 후 아들이 없어 성덕왕이 즉위시켰는데 성덕왕은 즉위하자마자 모든 관직에게 관직 1급씩을 올려 주었다. 이는 비정상적인 왕위계승과 불안정한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다.⁵⁾

성덕왕은 711년 백관잡을 지어 관리를 훈계하고 덕목을 제시하였으며 722년 8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732년 일본이 300여 척의 병선으로 신라를 공격하다가 대패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발해를 공격하

5) 조법중 외, 『이야기 한국 고대사』, 청아 출판사, 2007, p.321

다가 폭설과 발해의 반격으로 실패하였다. 성덕왕이 죽자 효성왕이 즉위하였는데 효성왕은 적극적인 대당 외교를 펼쳤고, 대내적으로는 박씨 왕비세력, 김순원 세력, 그리고 영종의 세력을 적절히 이용하여 정국을 주도 하였다. 효성왕의 뒤를 이어 경덕왕이 즉위하였는데 경덕왕은 내외관을 혁파하고 녹읍을 부활하여 귀족의 권한을 높여주었고, 적극적인 한화(漢化)정책으로 군현의 명칭과 중앙 관부의 관직명을 중국식으로 재편하였고, 중시가 시중으로 바뀌는 것부터 한화 정책이 시작되었다. 또한 국학을 태학감으로 전환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경덕왕 다음으로 혜공왕이 즉위를 하였는데 혜공왕은 제 36대 왕으로 혜공왕을 기점으로 신라를 중대에서 하대로 구분을 한다. 이 시기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난 정치적 격변기로 중대에서 해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전환에 따른 정권교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후 통일신라의 하대로 넘어 갈수록 점차 귀족중심의 정치로 왕권이 약화 되고 중대에 왕권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6두품의 세력이 약화 되었다. 또한 지방이 분권화됨에 따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도 약화되고 김헌창의 난, 농민반란 등 점차 쇠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통일신라의 정치적 상황 중 가장 큰 변화는 전제왕권이 확립된 시기로 상대등보다 집사부 시중의 권위가 더 높았던 것이다. 이는 6두품의 진출로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 및 행정실무를 총괄(집사부 시랑)호 전제 왕권을 뒷받침 하였고, 학문과 종교분야에서 활약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진골인 무열왕계가 왕위를 독점한 것에 비해 진골 귀족 세력은 약화되었다. 이것은 김씨 왕족의 왕권 옹호 세력화와 박씨 세력과 가야·고구려계 귀족은 정치권에서 소외가 된 것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둘째, 통일신라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살펴보면 신라는 국가 권력이 제도를 통하여 귀족 세력을 통제하고 민(民)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려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커다란 귀족의 세력을 계속 유지가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문무왕 8년(668) 포상으로 귀족들에게 막대한 식읍과 목장을 하사하였는데 이러한 목장은 귀족들에게 권력과 재력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귀족에게는 관직에 복무한 대가로 관료들에게 지급된 녹읍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정한 읍(邑)을 하사한 것이 아니라 녹(祿)을 하사한 것이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지배라기 보다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한 지배라고 할 수 있다. 즉 읍 주민의 노동력을 수유한 동시에 그 노동력의 과실인 조세·공부(貢賦)등을 수취하여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했던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6)

그러나 왕권의 전제화로 신문왕7년(687)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고, 신문왕 9년(689)에 녹읍제를 폐지하여, 연봉 성격의 축년사조(逐年사租)로 세조(歲租)를 지급을 확립하였다. 녹읍의 혁파는 모든 토지는 국왕의 소유이며 모든 민(民)은 국왕의 통치대상이라는 ‘왕토왕민(王土王民)’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귀족들의 반발로 경덕왕 16년(757)에 월봉을 없애고 녹읍이 부활되었다. 따라서 『삼국사기』 기록에 따른 녹읍의 변천과정은 녹읍→축년사조→월봉→녹읍순인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식읍과 녹읍은 관료가 국가에 복무한 것에 대한 보수의 개념으로 관리에게 지급한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지만 지역자체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노동력을 뜻 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경제 활동 중 가장 주요한 경제 활동은 농업생산이었다.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농민의 사유지 및 경작지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훗날 고려 시대에 민전 계통으로 이어지는 토지 지목이다. 연수유전·답과 함께 언급되어 지는 것이 정전(丁田)인데 정전은 성덕왕 21년(722) 8월에 처음으로 16~59세까지의 정남(丁男)에게 지급된 전토(田土)를 의미한다. 정전 지급은 자영 농민에

6) 조범중 외, op. cit , p.321

대한 직접적 지배와 고대 수취체제의 확립을 가져왔다고 파악이 된다. 이로써 국가의 농민에 대한 일원적 지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업생산으로 인하여 벼, 보리, 콩 등이 주요한 농작물로써 이것은 농민의 식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작물이었다. 하지만 이시기에는 가뭄·홍수·서리등과 같이 농업생산에 큰 타격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는 전주의 벽골제나 영천의 청제(靑堤)와 같은 수리시설을 만들거나 증축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또 통일신라에는 철제 농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통일신라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통일신라에는 수도인 경주(금성)가 번성하였는데 이곳은 귀족 생활의 중심지게 되었다. 따라서 귀족은 통일 이후, 신라의 정치·문화적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다. 또한 경주는 17여 호가 밀집된 대도시였는데 이곳은 바둑판처럼 구획된 시가지로서 귀족의 집은 기와집과 숲을 사용하여 화려한 귀족의 생활을 반영하였고 조제, 특산물, 국제 무역품이 집중된 거대 소비 도시이기도 하였다.

또한 수도가 아닌 지방에는 5소경이 설치되어 과거 벽제, 고구려, 가야의 일부 지배층과 수도에서 이주한 귀족이 거주하였는데 지방 문화의 중심지로서 동남쪽에 치우친 수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귀족들은 금입택에 거주하고, 노비와 사병을 거느리며 수입 사치품들을 선호하는 등 사치생활을 하였는데 흥덕왕 9년 사치금지령을 내렸으나 진골들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신라 사회의 소박함과 강인함은 점차 빛을 바래 갔다. 또한 이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 하였는데 통일신라의 불교가 꽃을 피운 것도 이러한 이유가 뒷받침 될 것이다.

반면에 평민의 생활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귀족의 토지를 빌

려 소작을 하였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귀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노비가 되었는데, 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결국 진성여왕 3년(889)에 정부에 대항하는 농민 항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통일신라의 문화적 배경

통일신라에는 삼국시대의 미술을 종합하여 세련되고 풍요로운 미를 발전시키는 반면 삼국시대의 소박한 티를 벗고 높은 미적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 비해 보다 화려하고 완숙하며, 국제성이 강하였으며 우리나라 미술의 황금기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미술의 전성기를 이루기도 하였다.

특히 통일신라는 문화적 발전의 꽃을 피우는 시기으로써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양식적으로 가장 발달한 시기에 속하기 때문⁷⁾에 통일신라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의 문화적 특성에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통일신라는 고유의 전통문화에 당나라의 문화를 흡수, 소화하여 우리나라 미술사상 황금기를 이룩하였으며, 둘째 통일신라의 주축을 이룬 불교는 호국사상과 일치되어 불교중심의 미술이 발달함으로써 사찰과 석탑 등 불교와 관련된 조형품이 많이 제작 되었으며 특히,<그림 2-2>에서와 같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조형상의 구성미가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통일신라의 문화는 섬세하고 화려하며, 독자적인 정교한 양식을 확립하였으며, 금관이나 장신구 등의 정교한 금속공예와 함께, <그림 2-3>과 같은 상원사와 봉덕사의 범종들은 조형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7) 주정미, op. cit p.211



<그림 2-2 > 석굴암과 불국사의 전경

(<http://blog.naver.com/ilsutory/100011592228>)



<그림 2-3> 상엄사 동종(한국 미술사, p.340)

3. 통일신라의 종교적 배경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뒤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은 것은 물론 문화까지 크게 융성하였다. 이때 문화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다.

신라의 불교는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신라인을 지배하는 종교와 철학이었으며, 통일신라기의 불교는 학문적인 불교, 철학적인 불교로 발전하였다.

통일신라의 불교는 중대에 번성한 교종과 하대에 번성한 선종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중대에는 국가의 발전과 함께 일반민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시기로,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와 대중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교종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교종이란 교리 즉 경전(부처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종파들을 말하는데, 통일신라시대에는 여러 고승들에 의한 경연 연구의 심화로 특색 있는 종파들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계율종(자장), 법성종(원효), 화엄종(의상). 열반종(보덕), 법상종(진표) 등 5교가 그것이며, 교종은 의식(종교행사)도 중시하여 왕실, 국가의 안녕과 개인의 복을 비는 각종 의식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색 때문에 교종은 광범한 세속적 지지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황실과 귀족들(진골)에 의하여 중앙집권 강화라는 차원에서도 깊이 숭상되었다. 또한 교종의 영향으로 탑, 불상, 불교 조각 등 조형예술의 발달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미술문화재는 거의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것들로, 사찰, 불탑, 범종, 불상, 석등인 것을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의 대표적 승려로는 의상(義湘, 625~702)과 원효(元曉, 617~686)를 들 수 있는데 이 둘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한 후 민심을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의상은 문무왕 원년(661)에 당나라 종남산에 가서 화엄종의 시조인 지엄(智儼)으로부터 화엄학을 배우고 문무왕 10년(670)에 귀국하여 영주에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고 해동화엄종의 시조가 되었으며,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도 맡았다. 그는 모든 우주 만물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조화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유명한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폈다.⁸⁾

이 논리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것으로 일체불리(一體不離) 혹은 원융(圓融)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상의 화엄사상은 주민의 일체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으며 통일 직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여하였다.

8)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07, p.166

의상과 비슷한 시기에 해동종(海東宗)이라는 독자적인 불교사상체계를 세운 원효가 있다. 해동종이란 법성종(法性宗)과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학불교의 여러 종파를 통합한 것으로 원효는 불교의 토착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또한 그는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노래와 춤, 그리고 거침없는 행동을 하여 민들의 정서에 파고들어 불심(佛心)을 불어 넣어 주어 불교 신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삼국 통일 시기 민의 지위와 의식이 크게 성장해 있었던 조건이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원효는 불교 교리 연구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는데, 원효의 사상을 모든 만물의 시초가 일심(一心)에서 발생하여 일심으로 돌아온다고 보아 마음이 순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모든 불교 교리상의 논쟁을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라는 논리로 극복하려 했으며, 모든 일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단숨에 생사를 초월한다는 무애(無碍)⁹⁾의 자유정신을 강조 했다. ¹⁰⁾

이와 같이 통일신라의 불교는 불교 자체의 신앙과 교리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 주었으나 점차 화엄종이나 법상종 등의 불교 교단이 갖추어지면서 국가 권력을 비호하고 그 보호를 받으려는 풍조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귀족 불교적인 속성이 다시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9) 무애(無碍) : 거침 없음

10) 한영우, op. cit., p.168

[표 2-1] 통일신라의 사회, 문화, 종교

	중대 (무열왕~혜공왕)	하대 (선덕왕~경순왕)
왕위 세습	진골 (무열계 직계)	진골 (내물계 직계)
정치	·왕권의 전제화 ·집사부 시중 세력 강화 ·6두품의 정치적 진출 (국왕의 조언자) ·상대등 약화 ·귀족 숙청 - 김흠돌의 난	·귀족 연합정치 (왕권약화) ·집사부 시중 세력 약화 ·6두품세력약화(반신라적) ·상대등 세력 강화 ·왕위쟁탈전 : 김헌창의 난
지방 행정	·9주 5소경(지방행정조직) ·9서당 10정(군사조직)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 약화 (지방 분권화) ·농민 반란(초적) : 원종, 애노의 난
사회	·중앙집권화 ·골품제도	·지방 분권화 ·골품제 동요
토지제도	·관료전, 녹읍폐지, 정전, 녹읍부활	·녹읍 소유, 농장 확대
문화	·화엄종(교종) ·조형미술 발달, 귀족 중심 문화 ·유교정치 이념 확립 : 국학	·선종, 풍수지리설 : 호족, 6두품 ·조형미술 쇠퇴 ·호족중심, 소박한 문화

제 2 절 통일신라의 복식

신라는 나라가 부강해짐에 따라 삼국을 통일하여 국력이 강대해지고 문화가 찬란하게 빛났으며 제반제도, 시설의 정비, 경제생활의 안정과 예술도 고도로 발달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신라는 친당정책으로 인해 당(唐)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따라서 복식은 물론 생활 전반에서 당의 영향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통일 후 문무왕은 부녀자들까지 중국 복식을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중국의 관복제도를 정식으로 받

아들여 입게 된 최초의 일이다. 이것은 궁중이나 특수 유관자 층에 한했다 할지라도 우리 복식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기에 복식사상 일대 변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신라는 골품제라는 신분계급이 있어 복식의 양상도 계급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특히 통일신라의 흥덕왕 때에는 그 교류가 활발하여 수입물품을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는 까닭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의생활이 얼마나 화려하고 호화롭게 꾸며졌는지 알 수 있다. 11)

그러나 흥덕왕 복식 금제의 내용 이외에 통일신라에는 복식일반에 대한 참고 할 만 한 자료가 충분치가 않다. 고분, 고종도 불분명하여, 도상, 석물도 회귀하기 때문이다. 다만, 흥덕왕 복식금제와 용강도, 황성동 돌방무덤 등에서 출토된 토용(土俑)글에 의해 추정할 뿐이다.

통일신라의 복식 양태를 크게 보면 두식(頭飾), 상의, 하의, 화(靴)와 이(履)로 볼 수 있다.

먼저 두식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상투머리, 여자의 경우 엷은 머리가 일반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복두(幘頭)와 소(梳), 채(釵)가 있다.

복두는 네 가닥의 끈이 달린 모자로, 산봉우리를 연상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는 당에서 도입 된 것으로 당시 왕은 물론 평민에 까지 통일신라의 모든 남성들이 착용하던 모자였다. 12)

소와 채¹³⁾는 여성 전용물이다. 소는 장식겸용의 머리빗으로 슬슬전(瑟瑟鉒)<그림2-4>이나 소대모(素玳帽)의 뼈를 많이 사용하였고, 금, 은 등으로 장식을 하였다. 채는 비녀를 말하는데 금, 은으로 누금(누金)하고 또는 주옥을 상감(象嵌)하여 장식하였다.

11) 류희경, 『우리옷 이천년』, 미술문화, 2008, p.33

12) 류희경, op. cit., p.34

13) 김정호, 『2000년 우리옷 이야기』, 글누리, 2007, p.75



<그림 2-4 >상감 장식 빗 (한국 미술사, p.357)

상의는 표의(表意), 단의(短衣), 내의(內衣), 반비(半臂), 배당(褙襦), 표(裱)가 있다. 표의(表意)는 겉옷을 지칭하는 것으로 곧은 것의 포(袍)와 <그림 2-5>와 같이 상류층 관복으로서의 단령(團領)이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에는 표의를 신분의 귀천 없이 남녀 모두가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토용 복두, 단령을 입은 문관상, 남자상
(경주 박물관 명품 100년, p.p.90~91)

단의¹⁴⁾(短衣)는 홍덕왕 복식금제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으로 신라에서는 저고리를 위해(尉解)라 칭하였기에 단의가 오늘날의 저고리와 같이 짧은 저고리를 말하는지 혹은 두루마기에 비해 짧다는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단의는 홍덕왕 복식금제에서 여자에 대한 금제만 보일

14) 김정호, op. cit., p.75

뿐 남자에 대한 것이 없어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치마 밑에 입는 저고리를 일컫는 것으로 단의는 당(唐)의 옷 입는 방식인 치마를 저고리 위에 입을 때의 짧은 저고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내의(內衣)는 표의에 대응하는 것으로 포에 대한 유(襦)이거나 표의 받침옷이라 생각 할 수도 있으며 글자 그대로 속옷 또는 받침옷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비(半臂)¹⁵⁾는 당대(唐代)에 비롯한 복식으로 반소매에서 민소매까지의 소매길이이며, 여밈의 형식은 고름을 사용하거나 매듭장식을 쓰고, 길이는 가슴 바로 밑까지 오거나 무릎까지 오는 것으로 다양하여 겹옷으로 착용되었다. 방한보다는 의례적인 목적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裱襠)은 어떤 제도의 옷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소매 있는 배자(褙子)와 양당(裊襠)의 복합개념¹⁶⁾으로 반비와 함께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삼국사기』에는 여인전용의 화려한 복식으로 나타난다.

표(褙)는 지금의 솔과 같이 여인들의 목 뒤에서 가슴 앞으로 길게 드리운 것으로 당나라의 영포(領布)를 말한다. 일종의 ‘목도리’인 것이다.

다음으로 하의가 있는데 고(袴)와 상(裳)¹⁷⁾이 있다.

고(袴)는 신라에서는 가반(柯半)이라 칭하였는데 복식금제에서 남자뿐 만 아니라 여자의 고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 것을 보면 통일신라에 까지 여자 착고의 풍속은 여전하여 바지만 입기도 했으나 의례용으로 치마를 바지위에 입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상(裳)에는 표상(表裳)과 내상(內裳)이 있는데 상은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존재되었던 것으로 귀천 없이 여인들만이 바지위에 치마를 입었

15) 예하미디어편집부, 『한국복식 문화』, 예하미디어, 2006, p.42

16) 예하미디어편집부, op. cit., p.43

17) 김정호, op. cit., p.77

다.

여기에 속치마를 끼입은 것을 내상이라 한다. 내상이 있어 치마를 겹쳐 입은 것은 점차 복식구조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2-6>은 상의 위에 치마를 입고 표를 두른 여인상으로 그 당시여인들의 복식구조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 2-6> 토용 상의위에 치마를 입고 표를 두른 여인상

(<http://blog.naver.com/nanalaa/130046780364>)

다음으로 화(靴)와 이(履)가 있는데 이것은 남자들이 착용을 하였던 신발이다.

따라서 통일신라에는 호방계통인 북방계열의 복식을 기본으로 중국 계복식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복식구조의 일부가 되어, 소화·흡수과정을 거쳐 국속화 되었으며 당제(唐制)는 상류계급의 복식으로, 하류계급의 복식으로는 국제(國制)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장 통일신라 예술의 조형적 특징과 유물

통일신라의 문화재는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사찰, 불탑, 범종, 불상, 석굴 등 이다. 따라서 불교를 떠나서 통일신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는 민족적 특징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불교문화와 구별이 된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문화적 발전은 7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며, 8세기까지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면서 자주적으로 발전하여 불교문화를 극치를 이루었다.

또한 통일신라는 새로운 문물을 수용·발전시키면서 점차 통일신라 특유의 문화를 성립해 나갔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결코 주체성을 잃지 않았던 신라인들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건축과 미술 등 여러 방면에서 독창적인 문화의 창조로 결실을 맺었다.¹⁸⁾

통일신라의 유물 중 불교조각과 공예미술의 유물이 비교적 많은 편¹⁹⁾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유물의 선정을 불교조각과 공예미술 및 통일신라인들의 복식을 알 수 있는 토용으로 한정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여 대표적인 유물을 추출하였으며 공예품에서는 토기, 불교공예품, 일상생활 공예품으로 나누어 유물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통일신라의 조형적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제 1 절 통일신라 예술의 조형적 특성

통일신라의 문화는 귀족 생활의 여유와 멋, 당과 서역 미술의 영향 등으로 삼국시대 미술의 소박한 티를 벗어나 보다 세련된 미의식을 나타내었다. 통일신라 중기의 예술이 주로 조형 미술의 중심이었으며, 대부분 종교 생활에서 나온 불교 미술이나 사후 세계를 위한 고분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통일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 사회가 완전히 정비되고 국력이 크게 신장함에 따라 문화의 최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국제 문화를 적절히 소화, 수용한 신라는 신라 독자의 화려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

18) 송인혜,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 박물관, 2009

19) 김리나, 『통일신라 미술의 대외 교섭-통일신라 미술의 국제적 성격』, 애경, 2001, p.19

었다.

통일신라의 가장 큰 조형적 특징은 ‘이상적 사실주의’이다.

이러한 이상적 사실주의는 인도 굽타 양식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이 되었으나 단순히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를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이상적 사실주의인 것이다.²⁰⁾

또한 통일신라의 이상적 사실주의는 불상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얼굴은 숭고한 위엄으로 가득 차 있으나 몸은 육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위엄은 불성의 이상형을 형상화 한 것이고, 관능은 인도 마투라 불상에 보이는 육감적인 요소가 발전한 것이다. 위엄적인 표현은 숭고함을 향하여 더욱 이상주의적인 경향으로 치닫게 되고, 관능적인 표현은 감각적이고 유연한 모습에 중점을 두어 사실주의적인 경향을 띄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엄과 관능의 융합은 곧 이상주의와 사실주의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²¹⁾

또한 이상적 사실주의에서 한 단계 더욱 발전하여 입체감과 사실성이 조화롭게 나타나는데, 이는 석굴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탄력적인 관능미, 잔잔한 우아함, 분출하는 에너지의 역동성, 이러한 아름다움이 석굴암 조각에서 종합적으로 표현되고 이들은 조각에 공간성을 부여한 새로운 미의식으로 승화되어 나타난다. 삼국시대의 대부분 조각은 앞부분만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통일신라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입체성이 고려된 것이다. 그런데 석굴암은 이러한 입체성을 뛰어넘어 공간성까지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의 조각의 양식을 팽팽한 탄력성, 유려한 장식, 절묘한 공간성, 여기에 감정을 억제하고 담담하게 나타낸 기하학적인 처리, 이러한 특징들이 통일신라 조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

20) 문명대, 『한국 조각사』, 열화당, 2000

21) 통일신라조각, <http://blog.naver.com/jyp.si?Redirect=Log&log=No40008407267>, 2010.05.02

이 외에도 통일신라에는 고 신라에서 보이던 직선적인 요소에서 곡선적인 요소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힘과 에너지로 충만한 조형이 통일의 과업을 이루면서 복고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곡선적인 형태가 나타나면서 통일신라만의 균형 잡힌 미적 감각으로 직선과 곡선을 배합시킨 뛰어난 조각품들을 볼 수 있다.

이로써 통일신라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첫째, 통일신라는 통일 후 고구려, 백제의 문화를 융합하여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둘째, 당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문화교류에 참여하면서 고 신라보다 더 세련된 양식을 선보이고 있다.

셋째, 불교가 대중화됨에 따라 민간문화의 수준이 향상되어 일상생활 공예품, 토기 등에서 금속 공예기술이나 곡선과 직선의 균형 잡힌 비례 등에서 그 우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넷째, 조형미술이 발달하였는데 주로 불교미술과 고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신라 중대때 절정을 이루고 하대로 갈수록 선종의 영향으로 점차 쇠퇴하게 된다.

다섯째, 통일신라에는 조화와 정제미의 극치를 이루었는데 석굴암이나 다보탑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귀족문화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화려함의 극치인 금속 공예품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통일신라는 국제적인 감각과 세련된 미의식을 바탕으로 사실성과 초월성, 그리고 종교성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 고대 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제 2 절 불상의 특징과 유물

통일신라초기의 불상은 삼국시대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조각양식의 융합을 통하여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다양성을 보여주며

사실적이고 힘이 넘치는 조형의 작품들이 제작이 되었다.

특히 서역 및 인도, 중국의 불교 문화권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하여 국제적인 성격의 불상의 발전에 한 몫 하였다.

7세기 말에서 8세기 전기는 삼국통일 이후 신·구양식이 공존하는 전환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당나라 양식을 수용하여 통일신라의 조각양식을 성립해 나가는 시기이며, 8세기 전반에서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는 우수한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불상이 제작되었다.²²⁾

또한 친근하고 사색적인 신라의 불상은 통일을 이룩한 자신감과 당나라의 영향으로 권위적이고 관능적인 형상으로 변화하면서 양식적으로도 통일을 이룩하였다.

통일신라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의 볼륨을 강조하는 옷 주름에 선각이 없고 모두 입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흔히 잔물결식(번파식, 翻波式) 옷 주름으로 불리는 이 옷 주름의 단면은 물결의 여운처럼 높은 옷 주름 사이사이에 낮은 옷 주름이 있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연상시킨다.²³⁾

이러한 옷 주름은 입체적인 불상의 모습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외국의 영향으로 최신경향이 받아들여 불상 몸체의 팽팽한 탄력감과 신체의 굴곡이 율동적인 옷 주름과 어울려 이제껏 보지 못한 조형적인 긴장감과 생명력을 발산해 내고 있는데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온화하면서도 위엄 있는 얼굴표정, 신체의 적절한 비례와 부드러운 윤곽선, 유기적으로 어울리는 옷 주름의 처리, 사실적이면서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이상화된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은 통일신라의 ‘이상적 사실주의’로 보인다.

22) 송인혜,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 박물관, 2009

23) 강우방외, 『불교조각Ⅱ』, 서울출판사, 2003, p.136

통일신라의 불상을 흙과 나무로도 많이 만들어 졌을거라 추측되지만, 석불(石佛)이나 마애불(磨崖佛), 금동불(金銅佛)등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통일신라에는 특히 금동불이 성행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금동불이란 동제주물(銅製鑄物)에 금도금을 한 불상²⁴⁾ 으로 삼국시대 이래 꾸준히 제작되어 불상의 양식이나 제작 기술의 변화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은 통일신라 불상의 물결치는 듯한 옷의 주름과 통일신라의 이상적 사실주의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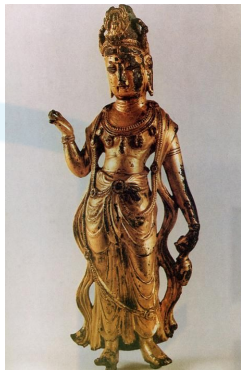
<그림 3-6>는 일제 때 유출된 통일신라시대의 불상들이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른 뒤 2008년 국립중앙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불상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남선희동 전기회사 사장을 지낸 오구라 다케노스케(1870~1964)가 수집해 반출한 1100여 점의 문화재 가운데 금동불입상(도쿄 국립박물관 소장)·금동관음보살입상·금동불입상(나라 국립박물관 소장)·금동약사불입상·금동보살입상(왼쪽부터) 등 5점은 보살상의 관능적인 표현은 물론 옷자락의 주름, 섬세한 표정까지 구현하고 있어 정상의 수준에 오른 통일신라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²⁵⁾

24)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25) 박중근, 중앙 일보, 2008.12.17 기사



<그림 3-1>감산사 미륵보살 입상 <그림 3-2>감산사 아미타여래 입상
(한국미술사, p.287)



<그림 3-3> 금동 관음보살입상 <그림 3-4> 안압지출토 금동여래입상
(<http://blog.naver.com/nocleaf>) (<http://blog.naver.com/dp99q009>)

<그림 3-5> 백률사 금동 약사 여래 입상
(국립경주박물관, 조각실1, p.70)



<그림 3-6> 일제 강점기 유출되었던 통일신라의 불상
(<http://blog.naver.com/dankoon2001/60106785987>)

금동불입상에서는 불상에 나타난 팽팽한 탄력적인 관능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얼굴은 자신감에 차있는 당당한 모습인데, 잘록한 허리에 굴곡이 뚜렷한 몸매가 밀착된 옷에 그대로 노출되고 아래로 생동감 넘치는 U자형의 주름이 매우 육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통일신라 불상 가운데 입상의 전형으로 보이고 있다.

통일신라의 불상은 9세기로 갈수록 그 양식이 점차 변하는데, 얼굴은 돌음새김으로 입체감이 충만한데, 몸과 관배는 음각선으로 평면적인 새김을 하여 대조를 보이게 된다. 서로 이질적인 조형요소가 부딪힘으로써 불상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입체적인 얼굴과 평면적인 몸체의 대비를 활용하는 기법은 통일신라시대에 시작하여 고려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양식이다.

제 2 절 공예품의 특성과 유물

통일신라 공예조각의 특징은 통일이전부터 내려오는 신라 전통의 양식을 바탕으로 삼국 및 당(唐)의 영향으로 새로운 양식이 결합하는 점이다. 이 양식은 국제적 성격의 정교 기법과 창의성을 보여주는데 통일신라 안압지에서 출토된 공예품들이 일본 정창원(正倉院) 보물 속에 섞여있을 통일신라계 유물의 발굴과 관련성을 찾아보는데서 공예미술의 발전을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신라-일본 간 공예품의 활발한 교역은 당시 정치·문화적 교류와도 상통하는 것 이었으며, 그러한 교류를 통하여 세 나라의 양식

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양상을 띤다.²⁶⁾

본문에서는 공예조각품 중 토기, 불교공예, 일상생활 공예조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불교조각과 일상생활 공예품은 금속기로 된 공예품으로 제한하여 대표적 유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토기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 뼈 항아리, 안압지나 절터에서 나온 생활용기, 가마터 발굴에서 나온 생산품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 문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²⁷⁾ 이러한 뼈 항아리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통일신라인들의 믿음으로 고분 등에서 여러 공예품이 발굴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통일신라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을 뼈 항아리로 통일 이전부터 성행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화장 풍습의 문화를 알 수 있다.

뼈 항아리는 기형, 무늬, 제작기법, 제작된 시기에 따라 뼈 항아리, 인화문 뼈 항아리, 무문 뼈 항아리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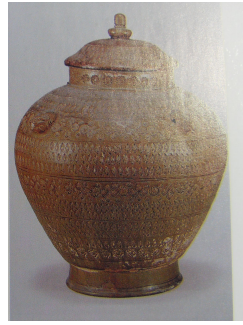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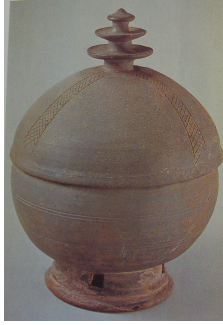
<그림 3-7>은 탑 모양 뼈 항아리로 7세기에 유행하며 뚜껑과 손잡이가 복발형 탑과 산개를 연상시켜 붙은 이름이고, 예리한 음각 선문과 컴퍼스로 돌린 듯한 반원문의 무늬를 새긴다.

<그림 3-8>은 녹유인화문 뼈 항아리로 8~9세기에 유행하였는데, 나뭇잎, 구름, 영락, 새 운학등과 같은 무늬를 항아리 전면에 압인(押印)함으로써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림 3-9>는 무문 뼈 항아리로 원화(元和)십년명 뼈 항아리다. 무문 뼈 항아리는 가는 음각의 횡선을 두른 것이 특징이다.

26) 주경미,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공예양식의 변화와 발전」,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p.212

27) 진홍섭 외, 『한국미술사』, 문예출판사, 2006, p.325



<그림 3-7> 탑모양 뼈 항아리 <그림 3-8> 녹유인화문 뼈 항아리
(한국 미술사, p.327)



<그림 3-9> 원화십년명 뼈항아리 와 뚜껑의 명문(한국 미술사, p.328)

이외 토기 중 생활용기로는 안압지 출토품이 대부분이다. 안압지는 통일신라 때의 호수공원이다. 동서 200미터, 남북 180미터로 땅을 파고 물을 끌어들이어 만들었다. 3개의 인공 섬과 5채의 건물이 들어섰다. 출토유물은 기와, 목간, 목선 등 무려 3만 3,000여 점에 달한다. 연못바닥에서 나무빗, 청동가위, 청동손가락 등 실생활용품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안압지는 고분에서 출토된 것이 대부분인 신라의 유물영역을 넓혀주는 보물창고 이다. 28) 안압지는 통일신라기에 귀족들의 사치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현적인 예로써 화려한 금속 장신구들이 대거 출토되기도 하였다.

28) 최형철, 『박물관 속의 한국사』, (주)휴머니스트 출판 그룹, 2007, p.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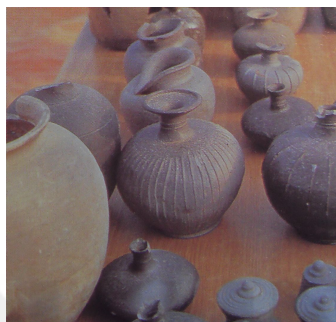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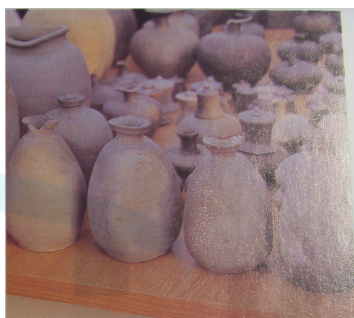
또한 안압지 출토품 이외에도 서울시 사당동, 전남 영암 구림리, 강진 삼흥리, 충남보령 진죽리 등에서 가마터가 발견 되었는데 이 가마터에서는 7~8세기의 특징을 가진 굽다리전시와 병, 큰항아리, 납작 밑바래기, 주름 무늬병 등이 발굴되었다.

<그림 3-10>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토기로 사발 앞뒤에 검은 물감으로 그린 초화문과 “언(言), 정(貞)과 같은 명문이 눈에 띈다.

<그림 3-11>과 <그림 3-12>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토기가마터에서 출토된 병, 항아리 뚜껑과 주름무늬 병이며 <그림 3-13>은 매병모양 토기로, 목이 길고 어깨가 넓으며, 밑이 홀쭉하게 생긴 커다란 병이다. 이 그릇들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액체를 담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운 태토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구웠으며 그릇 표면에는 물레로 성형할 때 물 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목 부분에는 마치 물결을 표현한 것과 같은 무늬를 새겨 넣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림 3-14> 또한 통일신라의 조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0> 토기초화문 언정명완의 앞면과 뒷면(한국 미술사, p.330)



<그림 3-11> 병, 항아리, 뚜껑 각종 <그림 3-12> 주름무늬병 각종
(한국 미술사, p.331)



<그림 3-13> 매병 모양 토기

<그림 3-14> 토기(미상)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 p.102) (<http://cafe.naver.com/6th2008/149>)

다음은 불교 공예 조각이 있는데 통일신라에는 불교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사리장엄구, 범종, 향완, 향합, 촛대, 정병, 당간지자 장식의 용두, 동경 등에서 괄목할만한 불교금속 공예품을 남겼다. 29)

특히 불교공예품 중에는 기년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대의 편년과 양식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사리 장엄구란, 사리를 수장하면서 그 존엄성을 나타낸 공예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일신라에는 가장 화려한 양식으로 제작되고 독창적인 장엄방식이 창안된 시기이다.

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리 장엄구로 사용되는 용기 형식의 독특함과 다양함이다. 통일신라의 사리용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는데 그중 보장형용기(寶帳形容器)는 통일신라 특유의 양식으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³⁰⁾ 보장형 용기는 사방이 뚫려서 내부가 보이도록 고안한 점이 특징인데, 감은사 동서삼층석탑에서 동시에 출토 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함과 동시에 통일 이루 전래된 새로운 생식을 함께 사용하여 발전시켰다.

셋째 통일신라 전성기의 사리장엄구는 쌍탑에서 동시에 출토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시에 출토되는 사리장엄구는 거의 동일한 형식과 양식을 따르고 있다.

<그림 3-15>와 <그림 3-16>은 감은사지 서삼층 석탑에서 출토된 출토품이고, <그림 3-17>과 <그림 3-18>는 감은사지 동삼층 석탑에서 출토된 출토품으로 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9) 진홍섭 외, 『한국미술사』, 문예출판사, 2006, p.333

30) 주경미, op.cit. p.214



<그림 3-15> 금동 사각사리 외함 <그림 3-16> 청동 전각형 사리기
(한국 미술사, p.332)



<그림 3-17> 금동 사각 사리 외함 <그림 3-18> 금동 전각형 사리기
(한국 미술사, p.334) (한국 미술사, p.335)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유물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불구류(佛具類) 범종이 있다. 범종이란 절에서 사용하는 큰 종을 말하는데, 신라의 범종은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독특한 형태미를 지니고 있다.³¹⁾ 또한 통일신라의 범종은 국가의 후원 없이는 성공적인 제작이 어려운 대형 범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이시기의 범종 중 국내에서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강원도 상원사종(그림 3-19), 성덕대왕신종(그림 3-20) 두 점뿐이다.

31) 임두빈, 『한권으로 보는 한국미술사101 장면』, 가람기획, 2002, p.101

상원사 범종은 오대산 상원사에 있으며 현존하는 종으로는 가장 오래된 범종이다.

성덕대왕 신종은 상원사 범종과는 달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종이며 국가적 사업으로 주조한 걸작품으로 소리와 조형성에서 과연 신의 조화를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훌륭하다. 이는 종신의 2/3쯤 되는 부분이 가장 넓고 다시 아래 부분은 약간 좁아져서, 형태적으로 단단하면서 안정감 있는 조형미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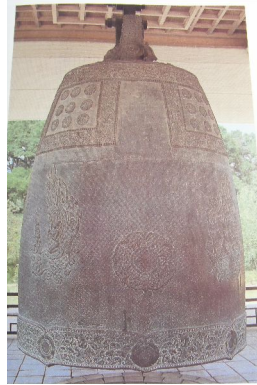
또한 뛰어난 형태감과 변화의 감각 및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으는 통일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비로운 활기를 가시적으로 표현해 내는 고도의 수준 높은 예술적 안목을 우리는 성덕대왕 신종에 새겨진 천인상에서 볼 수 있다. ³²⁾

다음으로 향로와 향합이 있는데 이것은 향로는 분향하는 종교 의기 중 하나로서 <그림 3-21>의 금동 손잡이 향로는 손잡이가 달린 향로 밑에 화병 받침이 있고 손잡이 끝에는 사자 조각을 따로 해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통일신라의 반자(半子)로는 함통을유명 반자 <그림 3-22>이 있는데 반자라는 용어는 명문마다 금고(金鼓), 반자(飯子), 금구(禁句)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으며 금속으로 만든 일종의 북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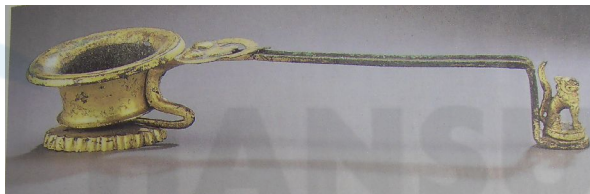
32) 임두빈, op .cit p.103



<그림 3-19> 상원사 범종
(한국 미술사, p.340)



<그림 3-20> 성덕대왕 신종
(한국 미술사, p.341)



<그림 3-21> 금동 손잡이 향로와 향로
(한국 미술사, p.345)



<그림 3-22> 함통을유명 반자
(한국 미술사, p.345)



<그림 3-23> 청동반자

(한국 미술사, p.345) (국립 경주 박물관, 고고관, p.288)

<그림 3-23>은 2009년 2월 경북 군위군 인각사 일대에 대한 5차 학술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불교의식구 일괄유물’을 발견³³⁾한 것 중 하나인 청동 반자로 국보급 유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촛대는 불을 밝히는 초의 받침 도구로, <그림 3-24>의 금동 수정감장 촛대는 촛농이 붙어 있어 초를 사용한 확실한 예를 보여 주었다.

<그림 3-25>의 광명대는 촛대와는 약간 다른 개념의 유물로 초와 기름등잔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통일신라의 광명대³⁴⁾이며, 경주 인왕사지 출토품으로 통일신라에도 광명대가 사용되었음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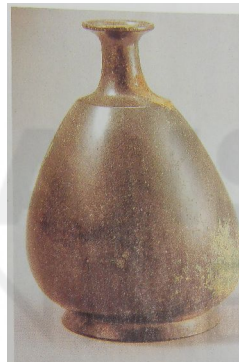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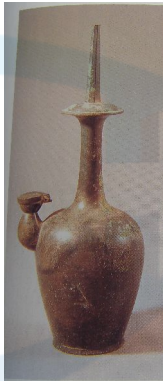
금속제 병은 액체를 담는 용기로 정병(淨瓶)과 수병(水瓶)으로 구분되는 데 현존하는 유물 중 정병은 9~10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림 3-26>의 청동 정병은 고려시대의 양식과 비슷하나 다른 기명들과 비교해 통일신라의 유물임을 알 수 있고, <그림 3-27>또한 청동 정병으로서 <그림 3-23>의 청동 반자가 출토될 때 같이 출토된 유물이다. <그림 3-28>의 청동병은 벌어진 구연부, 각이 진 어깨, 따로 붙인 굽다리, 무게중심이 아래로 처진 병의 곡선 등의 특징이 통일신라의 토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3) 김지희, 세계일보, 2009.02.06기사

34) 연합뉴스, 2007.10.23 기사



<그림 3-24> 금동 수정감장 촛대 <그림 3-25> 광명대
(한국 미술사, p.46) (<http://www.yonhapnews.co.kr/>)



<그림 3-26> 청동정병 <그림 3-27> 청동정병 <그림 3-28> 청동 병
(한국미술사, p.347)(<http://www.yonhapnews.co.kr/>)(한국미술사, p.347)

이외 통일신라에는 일상생활의 공예품도 있는데 통일신라의 일상생활 용품은 새로운 형식이나 문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찍 국제적 양식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지만, 동제완 같이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공예 양식을 발전시킨³⁵⁾ 것이 특징이다.

생활기명은 생활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기명들로 함, 대접 수저, 가위, 다연(茶研), 초두(鑱斗), 자물쇠, 호형등자(壺形鐙子) 등이 있으며 대부분

35) 주경미,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공예양식의 변화와 발전」,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p.231

이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이다.

<그림 3-29>는 짝을 맞추기 위한 ‘구(仇)자가 합뚜껑에 새겨져 있는 청동 구멍 합이고 <그림 3-30>는 화형접시와 대접, 국자. 손가락인데 화형접시는 시흥 방산동과 황해동 원산리에서 금속기를 닮은 화형접시가 있어 금속기와 청자사이에 관계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3-31>은 초 심지를 자르기 위한 금동제 가위 당시의 금속공예기법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32>은 철제 자물쇠이고 <그림 3-33>은 상감장식 빗으로 당시 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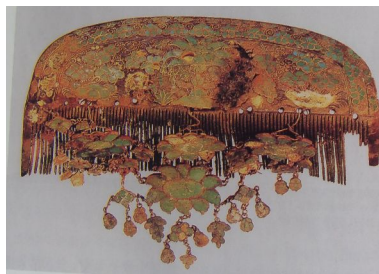




<그림 3-29>청동 구(仇)명합 <그림 3-30>화형접시,대접,국자,숟가락
(한국 미술사, p.350) (한국 미술사, p.351) .



<그림3-31>금동제가위 <그림 3-32> 철제 합령천일명 자물쇠
(국립경주 박물관, 고고관, p.33) (한국 미술사, p.357)



<그림 3-33> 상감장식 빗
(한국 미술사, p.357)

이로써 통일신라의 불교 조각 및 공예품의 전체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5~6세기의 직선적인 요소는 7세기 통일신라부터 다시 곡선미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힘과 에너지로 충만한 조형이 통일의 과업을 이루면서 복고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균형 잡힌 미적 감각으로 직선과 곡선을 합시킨 뛰어난 미적 감각을 볼 수 있다.

제 3 절 토용의 특징과 유물

통일신라의 복식과 관한 유물을 황성동 석실 고분이라 용강동 석실 고분 등에서 나온 흙으로 빚은 인형(土偶)들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³⁶⁾ 토용은 통일신라 복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남자들의 토우는 귀족, 일반인, 군인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림 3-34>는 복두를 쓴 문관상으로 복두의 착용방법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으며, 당의 영향으로 단령의 관리복을 입고 있으며, <그림 3-35>은 <그림 3-34>와는 또 다른 문관상으로 진골과 6두품의 남성들이 관복을 착용할 때 손에 드는 홀(笏)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3-36>은 일반남성의 복장을 잘 나타내 주는 토우로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단령을 입고 복두를 쓰고 있지만 관리들과의 복두와는 달리 비교적 간략한 삼각뿔 모자인 변(弁)자 모양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그림 3-37>도 일반 남성들의 복장인데. 관리들과 같은 단령을 착용하고 있지만. 옆선에 트임이 있고, 옷 길이가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것 등을 보아 비교적 활동성이 많은 계층에서 실용적으로 착용한 의복임을 나타내며. <그림 3-38>에서는 소매통이 비교적 좁고 손목까지 오는 길이로 경우에 따라선 소매를 접어 착용하기도 한 것을 알 수

36) 김정호, 『우리옷 2000년 이야기』, 글누리, 2007, p.33

있다. <그림 3-39>에서는 <그림 3-38>과는 반대로 소매가 길어 손등이 덮는 경우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40>에서는 단령 안에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현재의 일자바지와 비슷하며, 바짓부리는 대님이나 끈 등으로 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1>는 군인의 복장으로, 무릎길이정도의 겉옷에 바지를 입고 신발은 신목이 긴 장화를 신고 있다. 또한 오른쪽 어깨를 두껍게 표현하여 갑옷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 3-34>문관상 <그림 3-35>남자상<그림 3-36>복두를 쓴 남자상
(경주박물관명품100년,p.90)(국립경주박물관,고고관,p.216)(우리옷이천년,
p.35)



<그림 3-37> <그림 3-38> 병사상

(<http://cafe.naver.com/corean2009/580>)(우리옷 이천년, p.36)



<그림 39> <그림 40> 남자상 <그림 41> 무인상

(우리옷 이천년, p.36)

통일신라의 여성의 복식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중 토용에서는 표를 두른 여인상을 볼 수 있다.

통일신라의 여성복의 기본 형태는 단의(短衣), 표상(表裳)이라고 하는 상, 하의이며 여기에 표를 두르거나 표의를 입었다.

<그림 3-42>의 표를 두른 여인상은 옷소매가 부리로 갈수록 넓어지고 풍성하며 가슴은 네모지게 파인 형식을 보이며, 가슴에 맨 허리띠는 길게 늘어뜨려 그 장식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그림 3-43>에서는 표의를 걸치지 않은 여인상으로 상의의 소매통이 팔에 비교적 맞는 크기로 적당하게 만들어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를 걸친 여부에 따라 여인의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다.

<그림 3-44> 표의를 입은 여인상에서는 겉에 입은 표의가 눈에 띄는데, 표의는 위아래가 하나로 연결된 원피스 형태로서 길이가 발등을 덮을 정도로 길고 풍성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매가 매우 길어서 손을 모두 가린 모습은 그 당시 통일신라 여성들이 손끝을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풍습을 알 수 있다.



<그림 3-42> 표를두른 여인상 <그림 3-43> 여인상 <그림 3-44> 표의를 입은 여인상

(<http://cafe.naver.com/corean2009/580>)

(<http://blog.naver.com/nanalaa/130046780364>)(국립경주 박물관, 고고관, p.206)

제 4 장 대표적인 유물 선정 및 디자인 연구

본문에서 조사한 불교조각, 공예조각, 토용의 분야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의상디자인을 위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물을 선정하였다.

유물 설정에는 불교조각과 공예품, 공예품에서는 토기, 불교 공예품, 일상생활 공예품으로 나누었으며, 토용 등의 각 분야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어 주고 현대적 감각으로 응용하기에 적합한 조형적 특성과 모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패션 디자인을 연구 하였다.

제 1 절 불상의 대표적 유물 선정

이 시기의 불상은 신체의 볼륨을 강조하는 입체적인 형태로서 잔물결식 옷 주름과 외국의 영향으로 불상 몸체의 팽팽한 탄력감과 신체의 굴곡이 울동적인 옷 주름과 어울려 조형적인 긴장감과 생명력을 발산해 내고 있는데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인 잔물결식 옷 주름을 대표 이미지로 선정하여 각 유물에서 <그림 4-1>과 같이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한 후에 그 이미지를 잘 나타내 주는 유물을 선정하였다.

〈불상〉



〈불상의 부분적 특징〉



〈대표적 유물 선정〉

〈그림 4-1〉 불상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금동불입상에서는 불상에 나타난 팽팽한 탄력적인 관능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얼굴은 자신감에 차있는 당당한 모습인데, 잘록한 허리에 굴곡이 뚜렷한 몸매가 밀착된 옷에 그대로 노출되고 아래로 생동감 넘치는 U자형의 주름이 매우 육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통일신라 불상 가운데 입상의 전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유물로 U자형 주름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디자인을 전개한다.

제 2 절 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 선정

통일 신라의 공예조각은 통일 이전부터 내려오는 신라 전통의 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국제적 성격의 정교기법과 창의

성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통일신라부터 5~6세기의 직선적인 요소는 통일기부터 곡선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균형 잡힌 미적 감각으로 직선과 곡선을 배합시킨 특징을 볼 수 있다. 공예조각은 본문에서와 같이 토기, 불교 공예조각, 일상생활 공예조각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유물을 추출하였다.

1. 토기의 대표적 유물 선정

토기 또한 통일신라 공예조각의 특징의 영향을 받아 아름다운 곡선미와 사실적인 무늬를 조화롭게 하고 있으며 굽다리 등의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이기도 한다.

<토기>



<토기의 부분적 특징>

<대표적 유물 선정>

<그림 4-2> 토기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토기의 대표적 유물로 선정된 매병모양 토기는 목이 길로 어깨가 넓으며, 밑이 홀쭉하게 생긴 커다란 병으로 액체를 담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 부분에는 마치 물결을 표현한 것과 같은 무늬를 새겨 넣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유물이며 토기 또한 통일신라의 직선과 곡선의 균형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2. 불교 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 선정

불교 공예 조각은 통일신라에 불교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으며, 사리장엄구, 범종, 향완, 향합, 촛대, 정병, 당간지자 장식의 용두, 동경 등에서 괄목할만한 불교금속 공예품을 남겼으며, 특히 불교공예품 중에는 기년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대의 편년과 양식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불교공예조각은 화려하면서도 조형성이 뛰어난 유물이 많이 남아 있으며, 신비로운 활기를 가시적으로 표현해내는 고도의 수준 높은 예술적 안목을 볼 수 있다.

<불교공예 조각>



<불교 공예조각의 부분적 특징>



<대표적 유물 선정>

<그림 4-3> 불교 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불교 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로 선정된 성덕대왕신종, 청동반자, 광명대, 청동 정병은 불교 공예조각의 화려함과 조형미를 뛰어나게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조형예술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중으로, 종신의 2/3쯤 되는 부분이 가장 넓고 다시 아래 부분은 약간 좁아져서 형태적으로 단단하면서 안정감 있는 조형미를 가지고 있으며, 청동반자와 광명대 청동 정병은 통일신라의 곡선과 직선의 적합한 비율과 균형 잡힌 미적 감각을 뛰어나게 표현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3. 일상생활 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 선정

일상생활의 공예조각은 통일신라 공예조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서역 및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인들의 뛰어난 금속 공예 실력을 잘 반영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상생활 공예품>



<일상공예품의 부분적 특징>

<그림 4-4> 일상생활 공예품의 대표적 유물의 선정 과정

일상생활 공예품의 대표적 유물로 선정한 상감장식 빗은 통일신라 여성들이 머리에 장식구로 사용하던 도구로써 통일신라 금속 공예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 주고 있는 유물이다.

제 3 절 토용의 대표적인 유물 선정

통일신라의 토용은 통일신라의 복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그 시대의 복식형태를 알 수 있다.

통일신라의 복식은 당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인 복색을 띄고 있으며 단령, 반비, 배당등 당의 영향을 받은 복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용>



<토용의 부분적 특징>

<대표적 유물 선정>

<그림 4-5> 토용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토용의 대표적 유물로 선정한 두 여인상은 통일신라 여인들의 복식과 머리 형태 까지 자세히 볼 수 있으며, 표의를 입은 여인상은 그 형태에서 통일신라 여인의 정감까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제 4 절 디자인 연구

통일신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유물을 선정한 후 유물의 외형을 그대로 디자인에 적용시킨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유물의 외형을 변형 및 응용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유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재해석한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그룹지어 유물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물의 소재가 대부분 금속인 점과 현재 트렌드에서 모던한 감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소재가 메탈릭 소재임을 반영하여 메탈릭 소재를 주소재로 하였으며 각 그룹의 이미지에 맞는 부소재를 믹스 앤 매치함으로써 효과적인 디자인을 의도하고자 하였다.

불상에서 선정한 금동불입상은 통일신라가 가지고 있는 불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물결무늬 옷주름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공예품 중 토기에서 설정한 매병모양과 토기와, 토기는 유물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실루엣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의상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유물의 형태를 닮도록 설정을 하는 반면에 직선과 곡선의 조화와 비례는 직접 착용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도록 비례를 재설정 하였다.

불교 공예품에서 선정한 성덕대왕 신종은 종신의 2/3지점이 가장 넓고 점점 좁아지는 실루엣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이를 의상에 접목하였으며, 청동반자는 원형실루엣과 꽃의 사실적인 모습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의복에 적용을 시켰다.

또한 청동 정병과 광명대 또한 직선과 곡선의 배합, 황금 비례를 나타내는 유물의 형태를 의복에 일부 적용시킴으로써 모던한 실루엣을 의도함에 현대적 재해석을 해보았다.

일상생활 공예품에서 선정한 상감 장식 빗은 사실적이면서 화려한 금속 공예기법을 작품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장식적인 요소로 쓰인 꽃을 의복에 적용시킴으로써 통일신라의 금속공예의 화려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토용에서 선정한 두 여인상은 유물의 형태를 그대로 모티브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작품으로 전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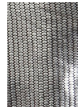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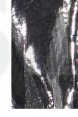
표를 두른 여인상 같은 경우 통일신라 여인들의 의복형태를 모티브

로 하여 작품을 전개하였고, 표의를 입은 여인상 같은 경우는 손끝을
가린 모습에서 통일신라 여인의 정조와 한손에는 술병을 들고 술에 취
한 듯 살짝 기울어진 자세에서 여인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작품의 모티
브로 설정하여 전개하였다.

각 유물에 대한 디자인 연구는 [표 4-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4-1] 각 유물에 대한 디자인 연구

그룹	그룹	유물	모티브	디자인 요소	주소재	부소재	아이템
작품 1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균형 잡힌 곡선과 화려함			원피스
작품 2				원형 실루엣의 모던함			원피스
작품 3				구조적인 형태의 실루엣			투피스
작품 4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직선과 곡선의 조화와 비례			원피스
작품 5				벌룬&슬림 실루엣의 조화와 균형			원피스
작품 6				화려한 금속장식			탑, 원피스
작품 7				직선과 곡선의 조화와 비례			코트
작품 8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잔물결식 옷 주름과 이상적 사실주의			원피스 바지
작품 9				여인상의 표와 소매부리의 특징			원피스
작품 10				여인의 의습과 술병			탑 베스트 바지

제 5 장 작품 제작

작품 1

디자인 그룹 :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모티브 : 성덕대왕 신종



아이템 : 원피스

color : silver, black

작품해설 : 종신의 2/3부터 점점 좁아져 단단하고 안정된 형태감을 모티브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실루엣을 의상에 그래도 접목시켜 원피스를 디자인 하였고, 점점 좁아지는 실루엣 표현을 위해 밑단으로 갈수록 잔서링 처리를 하여 자연스럽게 좁혀지는 실루엣을 의도하였다.

또한 밑단을 두 겹으로 재단하여 종의 실루엣이 좀 더 형태감 있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종의 외부 장식선은 배색을 통하여 표현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디자인에 재미를 더하였다.

작품 1의 소재는 원형무늬가 있는 메탈릭 소재를 주소재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원형의 무늬가 통일신라의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 모던한 감감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져 선정하게 되었다.



앞

뒤

<그림 5-1> 작품 1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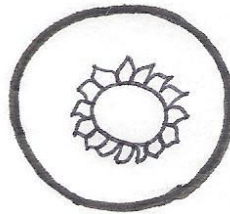


<그림 5-2> 작품 1

작품 2

디자인 그룹 :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모티브 : 청동반자



아이템 : 원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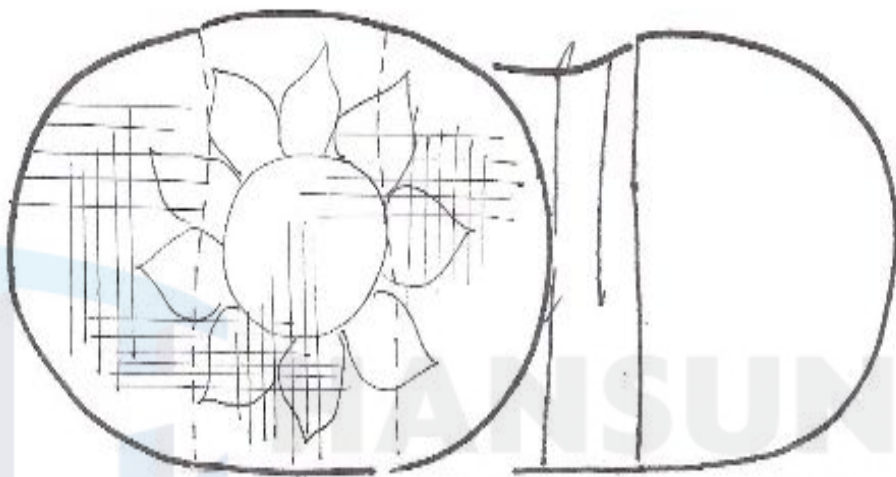
color : silver, black

작품해설 : 청동반자는 원형의 형태에 꽃무늬가 도출된 선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작품 2는 원형실루엣을 모티브로 원피스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디자인 표현 방법으로는 원형의 실루엣을 직사각형으로 조각을 내어 이를 각각 연결하여 다시 하나의 원형이 나오는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통일신라의 곡선과 직선의 균형적인 미적감각을 따르고자 발상하게된 디자인 표현방법이다. 또한 사실적으로 표현된 꽃의 모양도 의상의 중심에 위치하여 가장 중요하면서도 장식적인 요소를 함께 하고 있다.

주소재로는 작품1과 같이 원형무늬가 있는 메탈릭 소재로 의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꽃을 표현하였다.



앞

뒤

<그림 5-3> 작품 2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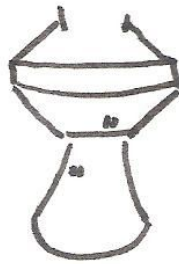


<그림 5-4> 작품 2

작품 3

디자인 그룹 :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모티브 : 토기



아이템 : 투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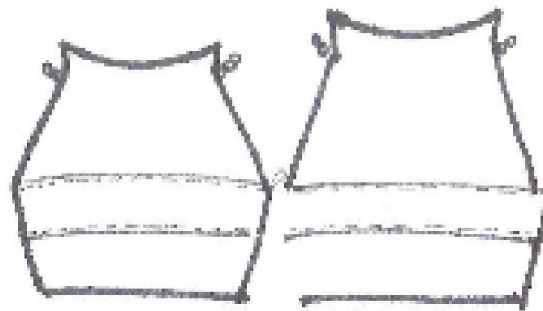
color : silver, black

작품해설 : 토기의 상부와 하부의 구조적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상·하의가 나뉜 투피스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토기의 상부는 의상의 상의로 디자인하여 토기 입구의 형태와 3등분으로 나누어지는 형태를 의상에 접목시켜 홀터 스타일의 상의를 완성 하였다.

또한 하부의 A라인은 의상에서도 넓게 퍼지는 A-라인 스커트로 디자인하였으면 스커트의 밑단에는 와이어를 넣어 넓게 퍼지는 라인을 더욱 형태감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커트의 여밈을 앞지퍼로 하되 지퍼 이가 니켈소재인 것으로 지퍼이를 노출하여 이 또한 하나의 장식적 요소로 사용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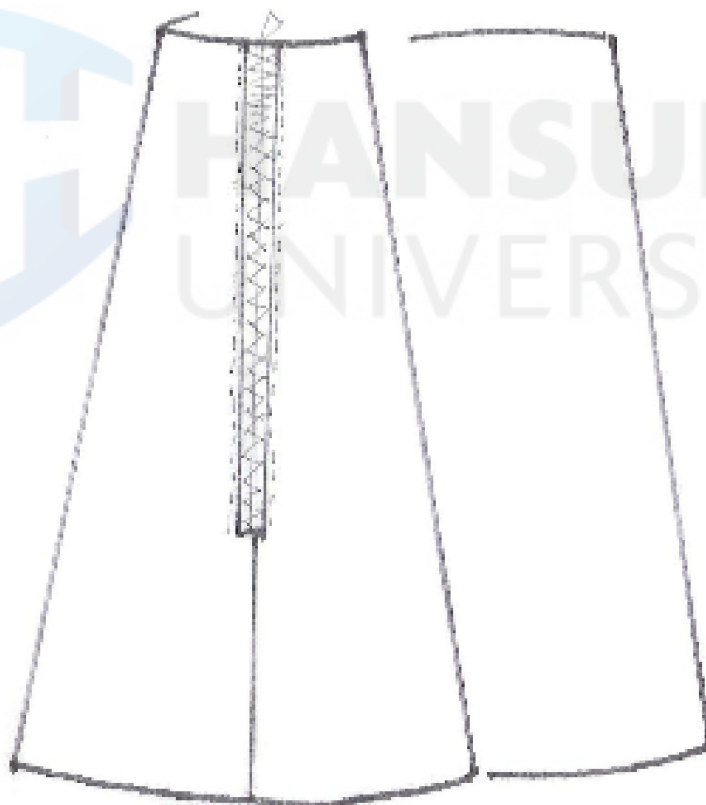
작품 3의 주 소재는 작품 1,2와 같이 원형무늬가 있는 메탈릭 소재를 사용하여 토기의 질감을 나타냄과 동시의 작품의 통일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앞

뒤

<그림 5-5> 작품 3의 상의 도식화



앞

뒤

<그림 5-6> 작품 3의 하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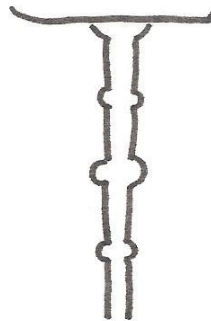


<그림 5-7> 작품 3

작품 4

디자인 그룹 :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모티브 : 광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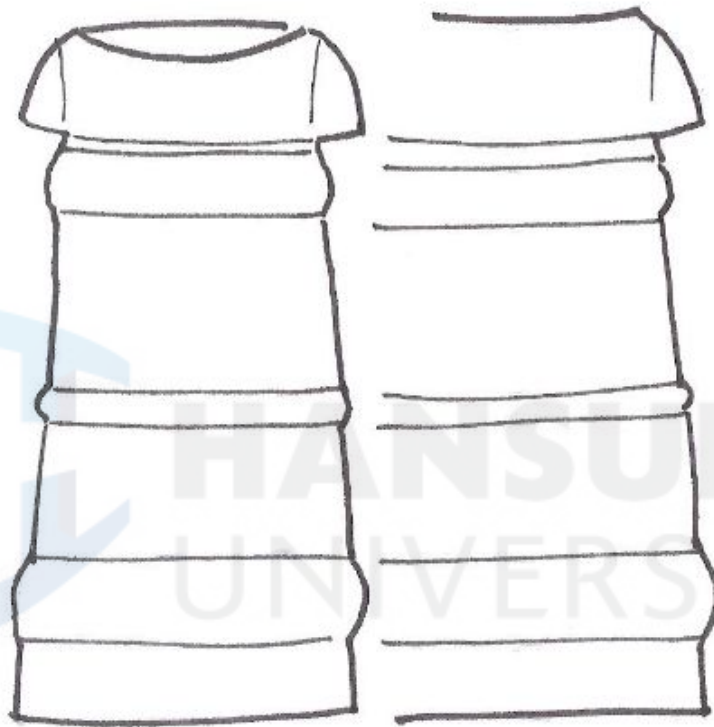
아이템 : 원피스

color : silver, black

작품해설 : 직선과 곡선이 배합된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물로 이러한 형태의 실루엣과 직선을 나눈 곡선의 비례를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다만 광명대가 가지고 있는 비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이상적인 비례를 재설정하여 적용을 하였다.

또한 곡선은 유물에서 가지고 있는 볼록한 모습을 의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여 표현하였다.

소재로는 가장 중요한 곡선의 요소를 광택이 있는 메탈릭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직선적인 요소는 시스루 소재를 사용하여 비침과 비치지 않는 효과에서 곡선의 요서를 더욱 부각시킴과 동시에 디자인에 재미를 더하고자 하였다.



앞

뒤

<그림 5-8> 작품 4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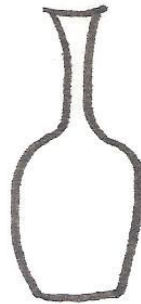


<그림 5-9> 작품 4

작품 5

디자인 그룹 :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모티브 : 청동정병



아이템 : 원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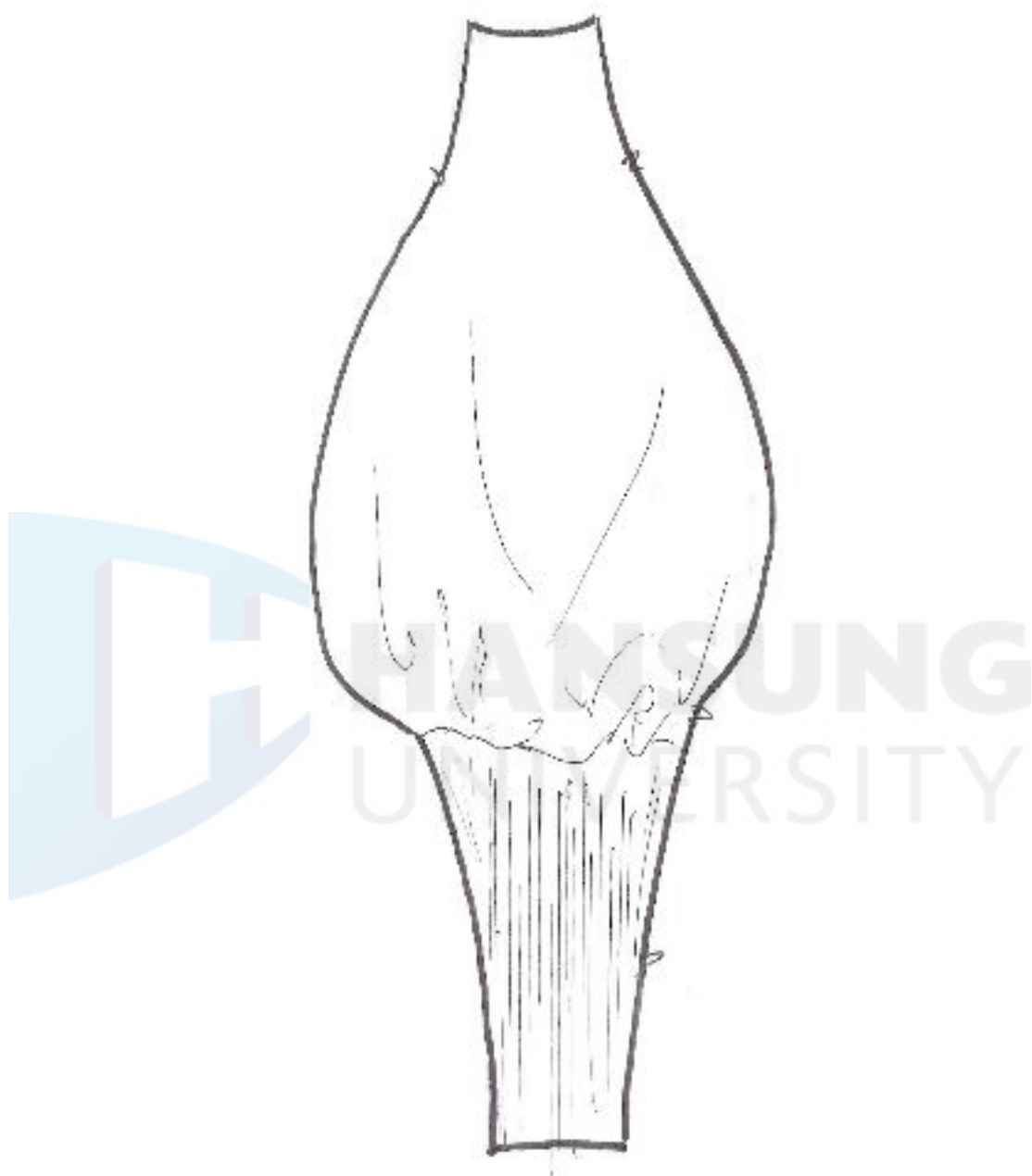
color : silver

작품해설 : 청동정병의 가늘다가 부풀어지는 실루엣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을 하였으나 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를 뒤집어서 의상에 접목을 시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실루엣은 상의는 매우 부풀어지다가 하의로 갈수록 매우 좁아지는 실루엣을 표현을 하였다. 이러한 실루엣 표현을 위하여

하의부분을 매우 적은 양을 일정하게 턱을 잡아 마치 립 밴드(rib band)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광택이 있는 메탈릭소재를 주소재로 설정하여 의상전체에 사용을 하였으나. 하의의 립 밴드와 같은 효과를 넘으로써 다른 소재를 사용한 듯한 이미지를 주어 디자인적 효과도 나타내었다.



<그림 5-10> 작품 5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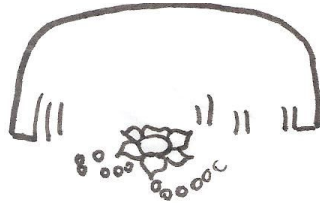


<그림 5-11> 작품 5

작품 6

디자인 그룹 :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모티브 : 상감장식 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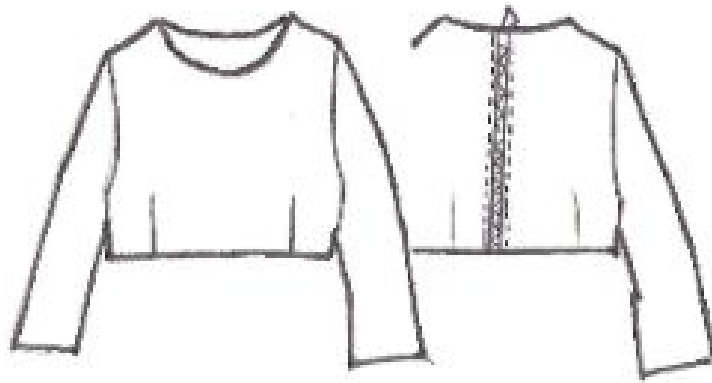
아이템 : 탑, 원피스

color : silver, black

작품해설 : 상감장식 빗은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극치를 보여주는 유물로 매우 화려한 장식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빗의 몸통부분과 화려한 장식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작품을 전개해 나갔다.

상감장식 빗의 반쪽 타원형의 몸체는 세워서 그 형태를 비대칭 원피스로 디자인하였고, 나머지 노출부분은 상감장식빗의 화려한 장식을 적용시켜 전개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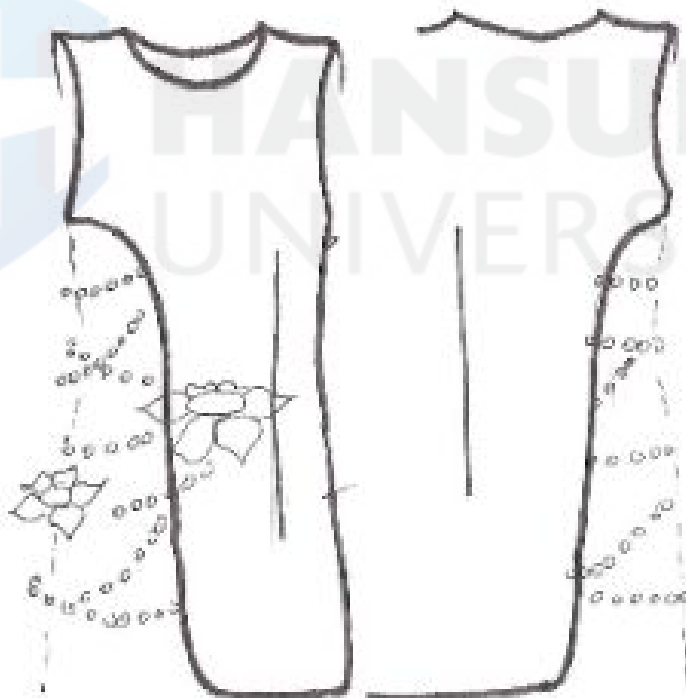
또한 장식품으로 사용된 소재는 메탈릭한 체인고리와 알루미늄판으로 꽃모양을 만들어 장식을 하였고, 몸체는 작품 5와 같은 광택이 있는 메탈릭한 소재 의상을 전개해 나갔다.



앞

뒤

<그림 5-12> 작품 6의 탑 도식화



앞

뒤

<그림 5-13> 작품 6의 원피스 도식화



<그림 5-14> 작품 6

작품 7

디자인 그룹 :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모티브 : 매병모양 토기



아이템 : 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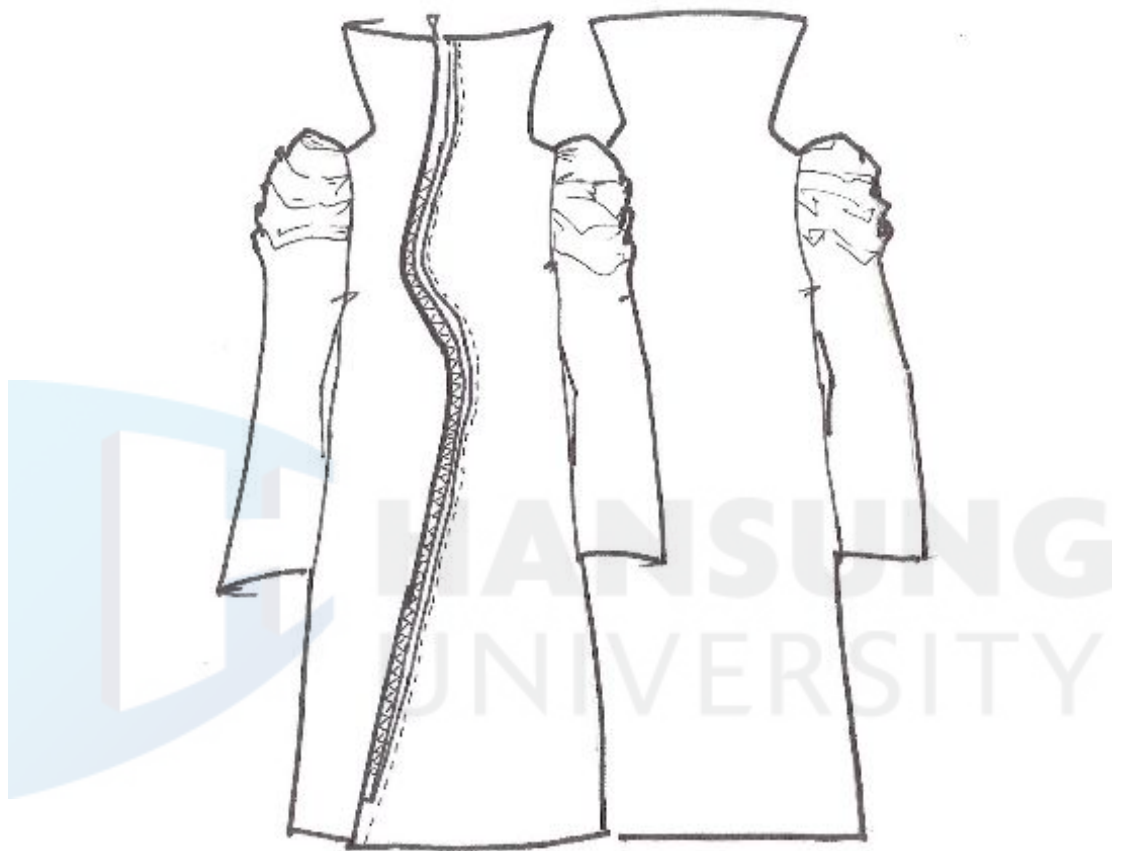
color : silver, black

작품해설 : 매병모양 토기의 입구에서부터 중심의 둥근 배부분에서 직선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모티브로 설정하여 의상의 한 부분에 적용하였다.

코트의 여밈 부분을 이러한 실루엣에 맞게 설정하여 디자인을 설정하였다.

또한 여밈 부분의 절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메탈릭한 소재의 지퍼와 광택이 있는 메탈릭 소재를 파이프 처리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소매 또한 이러한 실루엣을 함께 나타내고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토기의 입구부분을 단순한 하이 네크라인이 아니라 겨울에 워머처럼 두르는 효과를 나타내어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앞

뒤

<그림 5-15> 작품 7의 도식화



<그림 5-16> 작품 7

작품 8

디자인 그룹 :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모티브 : 금동여래 입상



아이템 : 원피스, 팬츠

color : silver, black, red

작품해설 : 통일신라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인 U자 모양의 옷 주름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디자인 하였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옷 주름을 표현하고 나머지 패널들은 몸에 꼭 맞는 실루엣으로 설정하여 입체적이면서 관능적인 불상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드러운 쉬폰 소재를 2겹으로 겹쳐 표현함으로써 서로 다른 색감이 은은하게 나타내는 것이 소재의 큰 특징으로 표현하였다.



앞

뒤

<그림 5-17> 작품 8 원피스 도식화



앞

뒤

<그림 5-18> 작품 8 바지 도식화



<그림 5-19> 작품 8

작품 9

디자인 그룹 :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모티브 : 여인상



아이템 : 원피스

color : silver, black

작품해설 : 여인의 소매부리를 모티브로 하여 소매부리로 해석하지 않고 소매의 색동절개선을 가슴부분의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적용하여 전개 하였다.

또한 통일신라 복식의 특징은 스퀘어 네크라인을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8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주소재로 설정하고 가슴 부분의 구조적인 형태는 광택감이 있는 메탈릭한 소재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앞

뒤

<그림 5-20> 작품 9의 도식화



<그림 5-21> 작품 9

작품 10

디자인 그룹 :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모티브 : 표의를 입은 여인상



아이템 : 탑, 베스트, 하렘팬츠, 비대칭 팬츠

color : silver, black , 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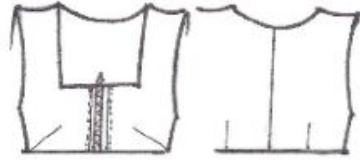
작품해설 : 표의를 입은 여인상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부끄러운 듯 손끝까지 소매를 내리고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은 통일신라 여인의 여성스러움과 정절을 나타내고 있으나, 반면에 한손에는 술병을 가지고 술에 취한 듯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모습은 통일신라 여인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재해석하여 이너웨어인 탑과 하렘팬츠로 통일신라 여성들의 자유분방함을 표현하는 반면에, 겉옷으로는 딱딱한 구조적인 실루엣의 베스트와 비대칭 팬츠를 매치하여 갑갑한 여인의 삶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앞

뒤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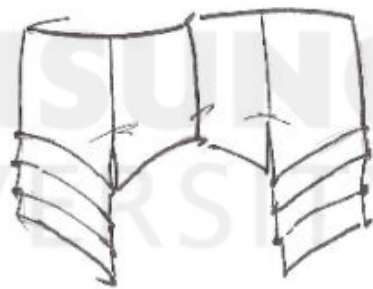
뒤

<그림 5-22> 작품 10 상의 도식화 <그림 5-23>작품 10 베스트
도식화



앞

뒤



앞

뒤

<그림 5-24> 작품 10 하의 도식화



<그림 5-25> 작품 10

제 6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한국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가 조선시대에 국한되어 있고, 그 방법 또한 모티브의 일부사용 혹은 복식의 재현 등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선시대 이외의 시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것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미약하게나마 해결하고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티브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전통복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통일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통일신라예술의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고 통일신라예술의 조형적 특징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불상, 공예품, 토용으로 나누어 조형성 및 유물을 선행연구, 인터넷 검색, 문헌 자료등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렇게 고찰한 유물 중 불상, 토기, 불교공예품, 일상생활 공예품, 토용등에서 10점의 유물을 선정한 후 유물 외형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유물의 외형의 형태를 응용, 변형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유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의미를 재해석한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으로 나누어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디자인 전개에 있어 소극적 방법이 아닌 유물의 형태를 그대로 의복에 적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은결과,

작품1, 2, 3은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의 그룹으로 작품 1은 성덕대왕신종의 안정된 형태감을 모티브로 하여 2/3부터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의상의 실루엣으로 설정하여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작품 2는 원형의 형태에 꽃무늬가 도출된 선을 모티브로 하여 원형

의 실루엣을 직사각형으로 조각내어 모자이크와 같은 효과를 줌으로써 통일신라의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표현하였다.

작품 3은 토기의 상, 하부의 구조적인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상의의 3등분된 형태와 하의의 A라인을 의상에 접목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작품 4, 5, 6, 7은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그룹으로 작품 4는 광명대의 직선을 곡선이 황금비율로 나뉜것을 모티브로 하여 의상의 실루엣에 접목하였으며, 시스루소재와 언시스루 소재를 믹스 매치함으로써 곡선과 직선의 요소를 더욱 부각 시켰다.

작품 5는 청동 정병의 실루엣을 뒤집어 의상에 접목시킨 작품으로 하의 부분을 일정하게 턱을 잡음으로써 rib band와 같은 효과를 줌으로써 한 가지 소재에서 다른 소재를 매치한 듯한 재미를 주었다.

작품 6은 통일신라시대 금속공예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유물임을 모티브로 하여 금속공예의 부분을 체인고리와 알루미늄판으로 꽃 모양을 만들어 장식하고자 하였다.

작품 7은 토기의 외형 실루엣을 코트의 여밈부분에 접목하여 메탈릭한 지퍼로 표현하면서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작품 8, 9, 10은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그룹으로 작품8은 불상의 U자 모양의 옷 주름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하여 불상의 입체적이고 관능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 9는 토용이 착용하고 있는 통일신라 여인의 의복형태를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가슴부분을 메탈릭 소재로 강조하는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작품 10은 여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통일신라 여인들의 자유분방함과 그와 대조적으로 간혀있는 삶을 모티브로 하여 다양한 아이টে을 통해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이렇게 통일신라예술의 조형적 특징을 잘 나타내어 주는 10점의 유

물을 선정하여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디자인 전개 방법에서는 모티브의 활용을 의상의 실루엣 및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연구되었던 소극적인 모티브 활용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연구된 의상디자인은 실생활에서는 바로 착용하기 어려운 예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전통복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타겟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밑바탕이된 연구이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우방 외 2명, 「불교조각Ⅱ」, 솔 출판사, 2003년
- 고복남, 『한국 고유의상의 멋』, 일념, 1994년
- 고유섭, 「구수한 큰 맛」, 다홀미디어, 2005년
- 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그래픽네트, 2009년
- 국사편찬위원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주)두산동아, 2006년
- 권준희, 『신라 복식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년
- 권준희 외 1명, 『統一新羅 內衣, 短衣, 考』, 한국 복식학회, 2002년
- 김새봄 외 4명,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한국 의류산업학회, 2009년
- 김영란, 『21세기 이후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전통의 현대적 재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 패션디자인 학회, 2007년
- 김원용 외1명, 「한국 미술의 역사-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시공사, 2003년
- 김정배, 「한국 고대사 입문3」, 도서출판 신서원, 2006년
- 김정호, 「2000년 우리옷 이야기」, 도서출판 글누리, 2007년
- 김정환, 「한국사 오디세이2」, 바다출판사, 2008년
- 김현진 외 1명, 『현대 Retro 패션에 나타난 Mix&Match Style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04년
- 남윤자 외 2명, 『統一新羅의 치마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2002년
- 디트리히 제켈, 「불교미술」, 예경, 2002년
- 류희경, 「우리옷 이천년」, 미술문화, 2008년
- 박차지현, 「청소년을 위한 한국 미술사」, 두리미디어, 2005년
- 백영자 외 1명, 「한국 복식의 역사」, 도서출판 경춘사, 2004년
- 심수현 외 2명,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현황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

,2007년

- 안희준 외 1명, 「한국 미술의 미」, 효형 출판, 2008년
- 역사문제연구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1」, (주)웅진씽크빅, 2008년
- 이덕일, 「살아있는 한국사1」, 휴머니스트, 2003년
- 임두빈, 「한권으로 보는 한국미술사 101장면」,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2년
-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Ⅰ)」, 도서출판 경춘사, 1996년
- 이선복, 『이선복 교수의 고고학으로 본 한국사 3 : 신라의 삼국통일 뒤에는 앞선 군수산업이 있었다 - 토기와 철기유물로 본 신라의 생산력』, 사회평론, 1996년
- 이수경, 『통일신라 미술문화에 대한 아동의 이해·감상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의 탐색』, 한국조형교육학회, 2000년
-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4년
- 이은형, 『한국 전통 배자의 복식사적 고찰과 현대화 직업』,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년
- 이호영, 『신라 삼국통일에 관한 재검토:통일의식을 중심으로』, 단국대 사학회, 1981년
- 전지은, 『우리나라 服飾과 西域服飾간의 共通性에 관한 연구 : 三國時代, 統一新羅時代를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년
- 정병모, 『신라 미술의 미의식』,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6년
- 전호태, 「자료로 본 한국 고대의 역사 I」, UUP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년
- 정재윤, 『내추럴리즘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재연구:아트웨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5년
- 조법종 외, 「이야기 한국고대사」, 청아출판사, 2007년
- 조현종 외 18명, 「한국문화와 유물유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년
- 주경미,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공예양식의 변화와 발전』

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2005년
진홍섭 외 3명 , 「한국미술사」, 문예출판사, 2006년
최재석, 『수출품을 통해 본 통일신라와 일본의 미술공예』 영
남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1994년
최형철, 「박물관 속의 한국사」,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07년
통일신라조각전 도록
한병화 , 「통일신라 미술의 대외교섭」, 도서출판 예경, 2001년
한영우 ,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06년



ABSTRACT

The modern fashion design study that
I already utilized of unitary Silla relics.

Kim Mi Sun

Major in Fashion Design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Global culture has been led by Western which is centered by the U.S and

Wester Europe, however, the oriental culture has started to move gradually from Japan, Chian and India in 20th century. The interst for Asia has swtiched to Korea with 'Korean Wave' from Japan, China and India in 21stcentury.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TV show, that is the fasted way to be spread to people in global, has limit to introduce Korean culture generally.

It's a shame that recognition for Korean custome is limited -largely in the whole world and even among young people- as the Joseon Dynasty era. Most people consider Han-bok(The Joseon Dynasty era's dress style) is the typical "Korean costume" stongly even we

had over 2,000year history. Moreover,
in Korea, experts study only about Korean costume but other eras.

In addition, the costume of the Joseon Dynasty, and despite
intensive research Not exceeded the limits of the traditional costume
of Korea excellence in fashion, rather than inform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elements and representational elements stronger than
internationalism, regionalism can be seen a strong trend biased.

In this paper,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Unified Silla and
Unified Silla society, culture, art and costume for the theoretical
study and of the Unified Silla Buddha statues, pottery, Buddhist
artifacts, daily life, handicrafts, clay figures from the 10 dogs were
selected.

Therefore, it represented a culture of Silla artifacts set up a
garment and applying it due to the limited times for South Korea
and overcomes the traditional images and the broader traditional
images are presented.

And South Korea should further direction of the turning point of
fashion is welcome to present material emanating in the direction I
want to use.

Design analysis methods applied as a form of artifact appearance
'artifacts using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form of
appearance of pyloric applications, variation 'artifacts using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in the form of artifacts
have Or r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remains a reinterpretation
of the image design is divided into three work groups were
developed.

In addition, the remains of the image to fit a modern and

contemporary art by re-interpretation would give emotional.

Material of the work of the current trends and most of the material artifacts that reflect the metal to a metallic material selected and designed to address the re-express the image that could well have set the supplementary material.

Mix and match it with the Western culture and Eastern culture is a blend of-work as shoe maximizes the visual symbolism.

Tagged with work clothes, clothing, etc. 10 of them, had broken down.

